

Part I 2021 수능국어개론 '독서론 I'

성명 [ ] 수험 번호 [ ]

0. 멘탈. 불안함.

파이널 과정 교재 집필 과정에서, 역시나 예상한 문제가 터져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불안감'

불안감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1. 운동/건강

- 1주 3시간 이상 3~4METs 이상의 운동 부족 ↓
⇒ 건강 악화 ↓ ⇒ 체력 부족 ↓ ⇒ 집중력 저하 ↓
⇒ 학습량 저하 ↓ ⇒ 학습 감각 상실 ↓
⇒ 불안감 증대 ↑ ⇒ 정신적 체력 저하 ↓/스트레스 증가 ↑
⇒ 공부량 늘리기 위한 수면 줄이기 ↓
⇒ 건강 악화 ↓ ⇒ 체력 부족 ↓ ⇒ 집중력 저하 ↓
...
⇒ 악순환 고리 계속

2. 현재 점수와 실력, 혹은 매일, 매 순간 문제풀이에서의 정신적 데미지
'이제는 다 맞아야 하는데 또 틀리네, 아직도 모르네...'

시험 준비와 문제 해결은 '이성'으로 해결

이성적으로 현상을 바라보십시오.

- '목표 등급에 한참 부족해'
'그런데 시간이 없어'
'공부에 집중이 안 됨'
'공부 외적인 상황으로 공부에 집중이 힘들어'
...

감정과 이성은 제발! 구분
시험은 이성. 삶은 이성과 감정.

이성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문제해결이 될리 없습니다.

'나는 A, B 방법을 했는데, C 방법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걸 하기엔 시간이 충분할까? 내가 될까? 그럼 A, B방법으로 계속 할까?'

여러분. 관성대로 살면, 그 관성대로의 점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전체 1타 강사의 한 영상 주제
'너희는 아는 것만 공부해. 그런데 성적이 오르겠니?'

여러분의 하던대로의 관성이 지금의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학습 방법,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그 관성대로의 점수만 받게 됩니다.

당연히요.

익숙하고, 불편한 것을 익히는 과정에서
기존의 잘못된 접근법, 습관이 교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지컬이 늘고,
클라쓰가 달라져서,
성적이 급등하는 기본 원리는
이 글을 읽는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그렇다면 누구나 1등급, 백분위 100 수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는데
자기가 믿지 못한다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개화기를 살아가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아야할까요?
변화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신조차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천우자조자(天佑自助者)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신이 포기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포기하지 않아야죠.

저는,  
신이,  
가족이,  
설령 당신이 당신의 삶을 포기하더라도,  
내 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제 모든 생의 에너지를 다해 응원합니다.  
그러니, 제가 내민 손, 그 삶의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 1. the Grand Final 30 risk hedge

지금까지 수업을 잘 듣고,  
백분위 100에 수렴해 가는 기존 수강생들을 위한 risk hedge  
학생 스스로 깨닫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점검과 해법  
학생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점검과 해법  
안정적 백분위 100수렴, 1등급 수렴을 향해 갑니다.

### 2. the Grand Final 30 Routine

그동안 쌓아 온 피지컬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된 자세와 습관 유지를 통해  
백분위 100, 1등급 확률을 높여 갑니다.

### 3. 미지와 미신에서, 과학과 경험, 근대로

미지의 영역이던 수능 국어 영역을  
출제자의 수업 바탕,  
출제자의 연구 논문 바탕,  
현장에서 수업하고,  
그 반응을 과학적-통계적-경험적 검증을 통해 확립했습니다.

기존 자료와 수업을 압도하는 퀄리티는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국어는, 해도 그대로, 안 해도 그대로인 과목이 아닙니다.

기존의 국어 과목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결국, 일반에게 일반적인 '미신'적 차원에서의 수능 국어 접근이, 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피지컬이 강하다면, 무엇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의 극적 성적 변화, 그리고 그 사례는 이제 이 수업에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는 이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 4. 집중력, 밀도와 압축.

지금까지의 수능 국어 접근법이  
지금의 수능 국어 접근법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조금이라도 깨닫고 있다면,  
그리고 안정된 멘탈을 바탕으로

평가원 오피셜  
실제 기출에 적용되어  
오답 이의 제기 에 대한 평가원의 오피셜

독서 지문 조차도 6~8분 이내 풀이가 가능한 문항 설계  
화작문에서의 정보-내용-구조-가치 처리  
문법에서 단순 지식 암기가 아닌 논리적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 차원 높은 정보 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평가원이 의도하는 다른 차원의 정보 처리 능력은  
사실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재된 역량을 깨닫고,  
의식해서 잘못된 기존 접근 틀을 교정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같이 극복해가는데,  
우리에게 시간은 이 시절, 딱 맞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 5. the Grand Final 30 ebs연계와 역대급 적중. 수능BIS, 21-6월 디지털세, 21-9월 행정입법... 문학은 물론 비문학 지문까지 끝없는 적중이 가능한 이유

평가원 출제 교수님들의 수업을 통해 교수님들의 mind set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수능에 출제/설계되는지 직접 배우고 확인했습니다. 출제될 소재와 지문은 시험지 유출도 아니고 타임머신도 아니며 신내림은 더더욱 아닙니다. 합리주의(Rationalism)를 바탕으로 역사(History)와 경험주의(empiricism)로 입증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수험생과 밀착된 소통을 통해, 파이널 적중은 물론, 근본적인 피지컬 까지 기르며,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한 대비 까지 이어갑니다.

6. 앞으로의 커리큘럼

커리큘럼 안내 문서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지드리겠지만,

근본-피지컬 향상 : 개인별 맞춤 커리큘럼 제공

독해력이라고 부르기에 평가원이 잘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고,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적용/창의적 사고/이해라는 표현을 쓰기에 너무 생소해서

근본-루틴 확립 : 매주 1회 수업으로 기준 확립 + 매일 매일의 학습 관리

다른 과목은 유형별 접근, 공식, 개념을 확립합니다. 수능 국어도 마찬가지로 틀로 출제되기 때문에, 유형별 접근 틀, 정보 처리 공식이 명확하며, 그 틀에 대한 확립, 습관 유지를 통해 수능날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능 시험범위인 기준 주요 평가원 기출+EBS

연계 흐름을 잡아 배경지식이 문제되지 않도록  
정보 처리 능력 = 내용 + 구조 + 정보가치 + 의도/설계  
모두에 대한 평가원 MIND SET 확립

실전연습 : 1~2주차 매주 2회, 3~4주차 매주 3회

코로나 상황에서도 당신의 실전 감각 향상과,  
학생들의 실제 문제 풀이 상황에 대한 분석.  
실력이 점수로 발현되기 위해서 필수인 실전 연습

정신적 체력과 육체적 체력, 즉 멘탈과 피지컬

수능 국어 점수와 관련되는 모든 요소에 대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초격차(超格差)

만들어 내겠습니다.

7. 30파이널 상세 커리큘럼 + Tier

0티어

20수능, 22예비, 21-6월, 21-9월, ebs, 1장 파이널 + 4주 완성 the Grand Final 본 수업

1티어

17~20 평가원, 3개년 교육청 실전, 이감모의 실전, 개인별 취약파트 (문학, 화작, 문법, 독서 소재별 접근) 지금까지의 학습 복습

2티어

14~17기출, 05~13기출 일부, 생소한 지문

8. 주차별 수업 주제

the Grand Fianl 30 1주차

문학 집중 + 비문학 감 유지 + 실전 틀 1차

the Grand Fianl 30 2주차

화법작문 집중 + 비문학 감 유지 + 실전 틀 2차

the Grand Fianl 30 3주차

독서 집중 + 문학/비문학 ebs 연계 출제 예상 소재1 + D-10일 학습법 (+ 실전 tip)

the Grand Fianl 30 4주차

파이널 리허설 + ebs/기출 연계 출제 예상 소재 2 + D-3일 학습법 (+ 실전 tip)

보충 커리큘럼

1. 전체 개괄 커리큘럼

보충영상 : 4시간. the Final 1주차

2. 화작문 하루 완성 커리큘럼

보충영상 : 7시간. 정규커리 8주차, the Final 5주차  
순서대로, 14~22 기출, ebs 연계 교재 적용, 실전연습 적용

3. 문법 하루 완성 커리큘럼

보충영상 : 9시간. 정규커리 3주차, 13, 14주차 + 추석특강  
순서대로, 14~22 기출, ebs 연계 교재 적용, 실전연습 적용  
\*단, 개념 부족, 개념 적용 부족시 별도 보충 강의 제공

4. 문학 이틀 완성 커리큘럼

보충영상 : 12시간. 정규커리 전반  
순서대로, 14~22 기출, ebs 연계 교재 적용, 실전연습 적용  
\*단, 개념 부족, 개념 적용 부족시 별도 보충 강의 제공

5. 독서 소재별 하루 완성 커리큘럼

보충영상 : 소재별 8~12시간. 정규커리 전반, ebs-기출 연계  
과학/기술 킬러, 법 킬러, 경제 킬러, 논리/철학 킬러, 정보량순 킬러, 원리/이해 난이도순 킬러

비수강생 자료는 다음을 통해 문의/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10-8388-5403 배인호 초격차 국어 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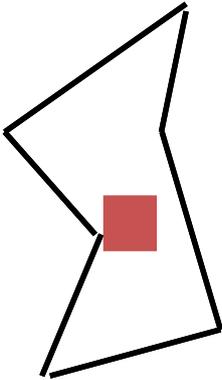
(수능/내신/단과/과외/온라인 수업)

추가자료 : <https://forms.gle/Zpa8CiZrCNF9jd159>

9. '의미'에 대해

영어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를 잘 합니다. 언어라는 측면에서, 영어도, 국어도 비슷합니다만, 국어는 아이러니하게, 모국어라는 특징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기 매우 어렵고, 그 결과 뇌피셜이 상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 번역기 => 한국어

와 같이

평가원 국적의 언어 => 번역(배인호)=> 일반의 언어

예를들면, 21학년도 9평 오답률 1등 문항인 '비평지문'의 경우 우리나라 1등 모의고사 출판사에서는 '문학이론'이라고 설명을 하는 예시처럼, 지금의 젊은 소장학파의 연구 유행과 발전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느낌인데, 학문에서야 문제가 전혀 없지만, 수능 대비에서는 문제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형상화'라는 당연한 개념을 모르는 상황이 파이널 1~2달 남기고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생기고,

결국 피지컬이 좋은 일부를 제외하면 수능 국어는 해도 해도 지치기만 하는 과목이 됩니다.

이 흐름에서 의미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

평가원 mind set에서 '문법' = '의미 체계'입니다.

문제는 그 '문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는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와 국어의 차이

1.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영문법 = 어법+문법+구문

어법 = usage

즉, 단어의 용례, 평가원에서는 micro한 문법으로 규정하며, 수능 시험 영어 문법 출제시 그 비중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이 출제매뉴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단어 암기로 해결해야지 수업을 듣는 것은 매우 비효율입니다.

문법 = grammar

의미 체계 전반을 포괄. 평가원에서는 macro한 문법으로 규정하며, 문법 문제시 출제 대상.

간단하게 규정하면, 8품사(noun, pronoun, verb, adverb, adjective, preposition, conjunction, interjection)와 4성분(S, V, O,C)에 대한 규정. 정도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길어도 6~12시간이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구문 = syntax

문장 수준에서의 의미 체계.

즉, 품사와 성분으로, 의미 체계를 확립. 예를들면

I am a student who have potential.

단어로만 놓고 보면

I / am / a / student / who / have / potential.

나 / 이다 / 있다 / 하나 / 학생 / 누구 / 갖다 / 잠재성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문장분석 : I am a student who have potential.

성분분석 : S V C 즉, 주어(는) 보어 동사(다)

품사분석 : pron v det + n

그래서 나는 학생 이다.

라고 의미 구조에 의해 - 의미 체계가 확립되어, 우리 머릿속에서, 영어의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라는 뜻이 구나. 라고 의미 전달/형성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뒤에 붙는 who have potential.

다들 잘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이고

관계 = 접속 역할 =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접속

대명사 = 선행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즉, 선행사인 student를 수식하는 형용사 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어 어순에 맞게 의미 구조를 잡으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이다.  
이라고 의미를 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문장 수준 정보처리하는 초등 수준에서 이미 끝났고,  
이미 우리 머릿 속에 내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평가원 지문을 문장 수준에서 처리한다?  
80분으로 충분할까요? 8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1)

또한,  
단순한 의미 구조 차원을 넘어  
정보 처리적 관점에서도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영역 까지 문법  
의 영역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2. 수능 시험 범위 ‘국어 문법’**

**언어일반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 - 국어사 -  
언어규범**

**이 기존의 국어 문법이였다면, 이제는**

**3. 21이후 개정 수능 문법 => 언어와 매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과목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문법’에 대한 정의조차도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문법에 대한 정의를 자기 손으로 작성해주세요

1) **문제는.**

**‘친숙한’, ‘이해가 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 아니라  
‘수능 본질’을 바탕으로 ‘성적을 올려주는’ 수업이 좋은  
수업입니다.**

**a라는 학생이 A라는 수업으로 성적이 올랐다고 해서,  
A라는 수업을 학생 b,c,d가 들으면 성적이 오를까요?  
훨씬 더 많은 변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a라는 학생이 피지컬이 좋다면, 사실은 뭘 해도 되는 학생이니,  
A라는 수업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성적은 오릅니다.**

문법 = ‘文’‘法’  
‘문장’의 ‘법칙’입니다.  
문장 = 하나의 완결된 의미 전달 체계  
즉, 문장 단위 = 완결된 의미 전달 단위  
그래서, 문법 = 하나의 완결된 의미 전달 체계  
가 되는데,

문제는 현 시점 수능 국어에서는 ‘완결된’ ‘의미’ 전달 체계  
라는 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의미’를 다루기 위해서는 국어는  
음운-형태-단어-문장  
까지가 고전적인 문법 학문 영역에서 주로 다룬 내용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일반의 상식이지만,  
2000년대 이후 학계 흐름은 맥락(context) 중시  
2010년대 이후 학계 흐름은 매체(media) 중시



위의 말을 앤디 워홀이 했니 말았니 하는 논란은 차치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명제입니다.

말 자체는 맞죠.  
같은 말을 제가 하는 거랑, BTS가 하는 거랑, 범죄자가 하는 거  
랑 같나요?

유명해지면,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가 생기고, 힘이 생기듯,

즉, ‘의미’는 ‘언어’로 ‘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어-준언어-비언어적인 것들이 모두 작용하고

2) 출처 : pgr21.com

특히, 화법에서 규정하는 상황에서는 언어적 요소는 35%의 비중 밖에 차지 하지 않습니다. 억양과 같은 준언어는 말할 것도 없고, 외모, 분위기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쯤되면, ‘문장’수준에서의 ‘의미’를 다루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래서,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으로 기존의 문법 과목이 확장할 수 밖에 없는 학문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3. 21이후 개정 수능 문법 => 언어와 매체**

**: 의미는**

- ① 형태-단어 수준에서
- ② 문장 수준으로
- 고전적인 문법과 의미 체계 단위는 여기까지-----
- ③ 문장을 둘러싸고 있는 문장 이상 단위 = 담화
- 담화의 요소 = 화자, 청자, 맥락 + ‘언어(발화)’
- ④ 문장 이상의 문단, 글, 그리고 글과 글, 그리고 그 요소들의 관계
- ⑤ 사회적 의미(매체)까지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문장의 법칙을 의미하는 ‘문법’

에서

의미 체계를 규정하니 ‘언어와 매체’로

과목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수학적 진리와 다르게

정보를 다루는 국어-언어학에서도

그 정보의 성격, 양, 가치가 달라지니, 달라질 수 밖에 없고,

그 변화가 매우 변화 무쌍한데

특히 수능 국어 시험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니

일반인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시험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피지컬이 좋은 학생들은 될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해도 안 되는 과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제가 있습니다.

제가, 평가원 언어를 여러분께 번역해드립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내가 개를 때렸다’  
 ‘그래서’  
 ‘우리는 싸웠다’

라는 문장에서는 ‘먼저’ 때린 내 잘못이 더 크며,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웠다’  
 ‘그래서’  
 ‘내가 개를 때렸다’

라는 문장에서는 ‘먼저’ 싸웠고, 그 싸움의 원인 때문에, 내가 때린 것이 되니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문제는

‘게임에서’  
 ‘내가 개를 때렸다’  
 ‘그래서’  
 ‘우리는 싸웠다’

이제는 폭력이 아니라 ‘유희’가 됩니다.

단순히, 단어의 모임이 의미가 되지 않고, 언어학의 발달 한계로

단어(형태) ⇨ 품사 ⇨ 성분 ⇨ 의미구조(통사)가 되며 문장 수준의 의미는 학문적으로 명확해졌으나

문장+문장의 관계  
 $\Sigma$ 문장<sub>1</sub>+문장<sub>2</sub>...문장<sub>n</sub> = 문단

문단+문단의 관계  
 $\Sigma$ 문단<sub>1</sub>+문단<sub>2</sub>...문단<sub>n</sub> = 글

글+글의 관계  
 $\Sigma$ 글<sub>1</sub>+글<sub>2</sub>...글<sub>n</sub> = 상호텍스트성

여기에 추가적으로 맥락, 학습자 개인의 schema 뿐 아니라, 사회적 상황까지도 관련됩니다.

당연히 차원이 다른 수준의 정보 처리가 필요합니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피지컬에 따라,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0. '이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수능 국어를 읽는 행위는 평가원의 의도 목적이 120단계라면, 한 60단계 쯤에 속해 있습니다.

120단계 쯤 빠르게 올라가셔야, 그 다음이 있는데, 자신에게 익숙하 60단계 쯤에서 머무르고 시간을 보내면, 좋지 않은 습관만 고착화 되어 나중에 바른 방법을 깨닫고 교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만 소요됩니다.

바로 다음 지문에서 확인할 내용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지문을 있는 그대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교육심리, 학습이론, 정보처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마다 경험과 지식이 다른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이해가 될까요?

'지문을 있는 그대로 확인, 후 어떠한 과정으로 이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줄글로 읽고, 그 줄글을 풀어주는 수업을 듣는다? 수업'만' 이해가 되지, 학생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생기는 때 우 요원합니다.

영어만해도 syntax 구조를 바탕으로 문장을 푼는 것이 잡혔거나, 커리큘럼상 그 수업을 전제한 뒤에야 문장 하나 하나 강사의 관점에서 설명해도 학생이 자연스레 syntax 구조를 보거나, 약속된 무엇인가가 있으니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능 국어는 그렇게 단순한 차원의 정보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버벅이면 절대로 수학을 할 수 없듯이,

'정보 - 내용에 대한 처리, 내용의 구조에 대한 처리, 내용의 관계에 대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비로서 이해가 시작됩니다.

수학을 하는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부터 힘들면 함수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물론, 구조, 관계까지 처리가 되어야 비로서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하는데

고3 수준, 즉, 대학교 정보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지금처럼 big data 시대라면?

정보

- + 내용에 대한 처리
- + 내용의 구조에 대한 처리
- + 내용의 관계에 대한 처리
- + 정보가치 판단
- + 설계와 의도 판단
- + (평가원) 사회적 의미 판단

이라는 총체적 과정을 거쳐야 비로서 평가원 출제자들이 출제하게 된 의도 파악과 그 목적에 맞는 내용 이해가 완결 됩니다.

당연한 것이, 수능 한 페이지로 책 한 권 분량을 출제하면?

1. 압축
2. 생략
3. 왜곡
4. 글쓴 사람의 의도와 관점에 따른 변형
- ⇒ 5. 논리적 완결 부족
- ⇒ 6.정보 이해를 위한 충분한 정보 불충분

그래서, 이제는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시험이고 10년 전 시험 접근법과는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가르치는 강사야 초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고, 상위 1%도 상위 0.1% 정도가 초인지 능력이 압도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니, 그 역시 당연하며, 피지컬이 좋으면

될 해도 됩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DPI2yaPBD-4>

제가 존경하는 강사 중 한 분이신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님.  
링크의 영상은 여러분의 시간이 될 때 참고하십시오.

다만, 출생이 강사이시다 보니 조금 과장이 있는데,

예를들면, 부, 명예, 권력을 위해  
1940년대라면 군인이 되었어야 했고  
1970년대라면 법조인/의사(전문직)가 되었어야 했으며  
1990년대라면 3<sup>rd</sup> wave에 맞는 무엇인가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2020년대는요?

극단적으로는 아프리카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아프리카로 가라'가 주제가 아닙니다.  
A라는 이유 때문에  
B가 된다.  
이니  
A = 이유 = 즉, 아프리카에 가라는 이유를 찾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대단한 서울대생들도 의대생들도  
아직도 50년 전 사상과 가치관에 기반하여 살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 안 그런 사람 찾기가 더 힘들지만,  
그 책임은 여러분 평생을 넘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게 됩니다.

아직도 이 나라의 꽤 넓은 세대에서는 유교적 가치관, 중세봉  
건적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사농공상이고, 숭문천무입니다.

수 백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바뀌는 게 더 이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자기 인생,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언제로 돌아가 어떤 선택을 한다면?  
소설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한 순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차적인 변화가 가져오고  
세포 하나 하나가 바뀌고  
그 과정에서 기억 하나 하나가 대체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이고  
그래야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순간에 데이터는 쌓여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 데이터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big data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data를 처리할까  
에 대한 방법과 틀이 필요하죠.

그 data 하나 하나 다 이해도 불가능한 시대거니와  
그러한 수준의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시대도 아닙니다.

수렵, 채집, 농경의 지혜만 알면 되는 2000년전도 아니고  
인류가 곧 화성에 인류를 보내는 지금 2020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신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태양이 신이 아니라, 핵융합의 결과물인지 알고 있는 시대에 살  
고 있으며, 심지어 태양을 만들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  
다.

즉, 과거의 인간과 완전히 다른 종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마주하지 못한 미래가 있고,  
미래는, 과거에서, 정보에서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차원이 다른 정보처리 능력이 요구 되며,  
그래서 수능 국어는 지금과 같은 틀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결과가  
6주 수업 8주 수업만에 4~6등급 학생들이 백분위 99, 1등급을  
큰 무리 없이 받게 됩니다.

다른 학생들은 아직도 저 먼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음 지문으로 시작합니다. (수업 순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  
다. Grand Final 수업 중 뒷골이 서늘해지는 소름이 끼친 지문...  
아는만큼 보인다.)



2021학년도 수완 실전 3 197~198p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독일의 사회학자 니콜라스 루만은 체계 이론을 주창했다. 그는 복잡하게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세계의 다양한 복잡성을 포착하여 축소시켜 처리하는 것을 사회학의 목표로 삼았다. 루만은 '의미'를 자신의 이론에서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는데, 사회학에서 의미를 기본 개념으로 제안한 것은 루만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이 개념은 베버의 고전 사회학에서 사회학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베버에게 의미는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는, 즉 그 자신의 관점에서 행위가 갖는 의미이다. 따라서 베버는 일차적으로 의미를 행위자가 의도한 주관적인 것으로 본다. 그런데 베버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행위는 비록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수반되고, 그 의미가 그 행위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에 의해서 이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버는 '주관적' 의미를 '객관적' 의미와 구분한다. 베버의 이론에서 객관적 의미는 행위 주체의 의미 구성 과정을 배제함으로써, 즉 관찰자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 형성된다. 물론 이때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는 관찰자가 해석하는 의미로 축소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결코 사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찰자가 관찰한 행위를 객관적 해석 틀에 정리하듯이, 행위자도 관찰자와 공유하는 해석 틀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베버는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의 구분을 통해 사회적 의미의 생성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행위' 개념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위와 연관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끌어 내는 행위로 정의된다. 즉 사회적 의미는 행위자와 관찰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이해된 것으로, 사회적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의미 개념은 행위자의 실행을 통해 표현된다. 그렇지만 루만은 그러한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주체가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주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논의하여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이와 달리 의미 개념을 주체와 분리시켜 다루게 되면, 개별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루만은 행위 주체로부터 독립되어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상징함으로써 세계의 복잡성을 축소시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루만의 의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험'과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세계와의 관계에서 체험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통보받기 때문에 행위로 현재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체험의 과부하는 복잡성과 우연성을 갖게 된다. 복잡성은 다양한 체험 중에서 실천적인 선택을 통한 행위를 강요하고, 우연성은 행위의 결과가 주는 실망의 위험을 허용한다. 이때 우연성이란 행위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위의 결과가 나타

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체험의 과부하를 처리하는 수단이 바로 의미이다.

의미는 어떤 사태의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성을 축소하고, 체험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수단이다. 의미는 의식(심리 체계)이 체험을 선택하여 행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 이때 선택되지 않은 것은 폐기하지 않고 잠재화하는 방식으로 체험을 처리한다. 결국 의미를 통한 체험 처리는 복잡성의 축소와 보존을 동시에 실현하여, 선택되지 않은 것을 의식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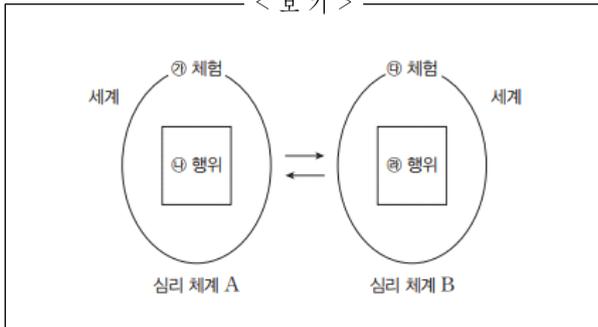
루만의 체험과 행위 구분은 체계와 연관을 ㉠가지는 개념이다. 심리 체계 A(사람 A)의 행위는 심리 체계 B(사람 B)에 의해 체험될 수 있다. 이때 심리 체계 A가 자신의 체험에서 통보된 복잡성을 축소(선택)하여 행위를 통해 심리 체계 B에게 통보하면, 심리 체계 B는 수신된 체험의 복잡성을 축소하여 행위를 통해 다시 심리 체계 A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은 의미를 통한 세계의 구성을 매개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루만의 체계 이론에서 의미는 행위자가 의도하는 어떤 목적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루만에게 행위는 체험 처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정 시점의 사건이다. 이렇게 심리 체계는 의미를 수단으로 하는 선택을 통해 복잡성을 축소하고 가능성을 현재화하여 행위하며, 나머지 가능성을 잠재화한다.

2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루만은 의미를 주체의 실행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본다.
- ② 루만에게 사회학의 목표는 세계에서 통보되는 다양한 복잡성을 축소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 ③ 루만은 의미를 통해 현재에는 배제된 체험이 미래에는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 ④ 베버에게 객관적 의미는 관찰자의 해석을 통한 것으로, 행위자의 의미 구성 과정은 배제된다.
- ⑤ 베버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한 의미라 해도 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관찰자와 공유하는 지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21.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해 찾은 루만의 '의미' 관련 자료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㉕가 지닌 우연성으로 인해 ㉔는 심리 체계 A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② ㉔와 ㉕는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로부터 각 심리 체계로 통보되는 것으로, 현재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 ③ ㉔와 ㉕는 복잡성과 우연성을 지닌 것으로, 의미는 ㉔와 ㉕를 축소, 선택하여 처리함으로써 ㉔와 ㉕를 가능하게 한다.
- ④ 심리 체계 A의 ㉔는 심리 체계 B에게 ㉕로 통보되고, 심리 체계 B는 의미를 통해 이것을 축소하여 다시 심리 체계 A에게 통보한다.
- ⑤ 심리 체계 A에서 의미를 통해 선택되지 않은 ㉔는 심리 체계 B에게 잠재화되어 ㉕로 남아 있게 된다.

22. 윗글의 '베버'와 '루만'이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을 추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동학 농민 운동'은 1894년 전라도 고부의 동학 접주 전봉준 등을 지도자로 삼아,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전개되었다. 음력 1월 10일, 전라도 고부 농민들이 군수의 가렴주구를 견디다 못해 들고일어났고, 동학 접주인 전봉준이 이끈 농민들은 군수 조병감을 몰아내고 관아를 점령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에서 보낸 관리가 오히려 농민을 탄압하면서 고부 봉기는 농민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전라도 감영군을 대파했고, 정부가 보낸 중앙군마저 물리치고 전주성을 점령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했고, 조선의 상황을 주시하던 일본도 군대를 보냈다. 농민군은 청나라와 일본이 간섭할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전주성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하지 않고, 조선을 압박했다. 조선 정부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2차 봉기가 일어났고 전라도를 넘어 충청·경상·황해·강원도에서도 봉기에 참여했다. 전봉준이 이끈 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 부대와 공주 우금치에서 혈전을 치렀지만 결국 패했다.

- ① 베버의 입장에서 전라도 고부의 봉기가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한 사회적 행위라는 측면에서, 지배층의 가렴주구에 대한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의 저항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베버의 입장에서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 농민 운동이 충청·강원 등으로 확산된 것에 대해, 의미가 전라도를 넘어 다른 지역 사람들의 행위와 연관되면서 '사회적 행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
- ③ 루만의 입장에서 전라도 고부에서의 봉기를 당대의 부패와 모순 해결이라는 '의미'에 의해 선택되어 현재화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루만의 입장에서 전주 화약을 외세 개입 반대라는 '의미'를 매개로 선택된 행위로 보면서 조선 내부의 다른 문제는 잠재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루만의 입장에서 일본군과 관군 연합 부대의 승리는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의 개입에 대한 반대가 '의미'를 매개로 배제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23. 윗글의 '루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갑은 시험이 끝나고 을과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는 중에 남녀 주인공의 이별 장면이 나오자, 갑은 눈물을 흘린다. 영화보다 갑을 더 신경 쓰던 을은 그런 갑을 위로하면서 손을 잡아 준다. 하지만 앞좌석의 관객은 영화 시작부터 계속 즐기고 있다.

- ① 갑과 을이 영화를 보러 간 것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이별 장면에서 갑이 슬픔을 느낀 것이라면 눈물을 흘리는 행위는 슬픔이라는 '의미'에 의해 선택된 것이겠군.
- ③ 갑의 눈물은 을에게 '체험'으로 통보되고, 을은 이에 대해 위로의 '의미'로 '체험'을 축소하여 손을 잡아 준 것이겠군.
- ④ 남녀 주인공의 이별 장면은 갑, 을 모두에게 '의미'를 통해 축소 처리되어 선택된 체험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즐기고 있는 앞좌석의 관객에게 영화 장면은 심리 체계로 통보되지 않은 '세계'에 해당하겠군.

24. 문맥상 ㉔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
- ② 서점에서 책을 잔뜩 사 가지고 왔다.
- ③ 재활용품을 가지고 작은 책상을 만들었다.
- ④ 다른 시민 단체와 교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⑤ 어제 저녁에 환경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T.S 루만. 베버. '의미'	1. 주제 + 주제 구조 2. 정보가치 집중 3. 처리 가능정보 집중 4. 이해가 안 되는 이유 명확히 할 것
2 베버의 '의미' 1	
1. 주관적 의미 2. 객관적 의미 논리 완결성 부족, 정보 부족	
3 베버의 '의미' 2	
3. 사회적 의미	
4 PS T.S P 베버 : (주관적 의미 중시) S 루만 : 보편(객관적?사회적?)	
5 루만 '의미'의 원리 세계 ⇒ 체험 ⇒ 선택/축소 ⇒ 행위 논리 완결성 부족, 정보 부족	
6 루만 '의미'의 원리+부연 체험 ⇒ 선택/축소 ⇒ 행위 나머진 처리.불.가	
7 루만 '의미'의 원리 적용 예시로 이해. 도식화 필요성.	
8 결론. 요약정리 (베버) vs 루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지문으로, 위와 같은 정보 처리로 정리가 됩니다. 위에 대한 정보 이해를 먼저 완벽히 하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문제는, 중간에 써 놓았듯 요즘 지문의 특징인,

- ① 논리적 완결성 부족
  - ② 정보 부족으로
- 아무리 시간을 써도 처리가 완벽히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요즘 수능의 평가원 mind set으로 지문을 접근하면 다음과 같게 정리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배경을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텐데, 자신이 읽는 내용을 믿지 말고 아래와 같은 정보 처리에 집중해주세요.

당연히 수학 30번 문항 같은 수준이니, 이해가 안 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기반,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 당연한 결과.

삼각함수 극한을 위해서

우선은

①삼각+②함수+③극한을 알아야 합니다.

①삼각

- 초등수학 기반
- 중1 도형-삼각형
- 중2 도형-닮음과 비례
- 중3 도형-삼각비

②함수

- 중1 정비례/반비례 함수
- 중2 1차 함수
- 중3 2차 함수

③극한

- 중등+고1 함수기반 고등 수열
- 수열 기반 수열의 극한
- 수열의 극한 기반 함수의 극한

이 되어야 비로서 삼각함수의 극한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삼각함수의 극한을 한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차근 차근 커리큘럼을 따라와서 쌓아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농지’

기억하세요.

탈출은 농지순.

독일의 사회학자 니콜라스 루만은 체계 이론을 주창했다. 그는 복잡하게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세계의 다양한 복잡성을 포착하여 축소·처리하는 것을 사회학의 목표로 삼았다. 루만은 의미를 자신의 이론에서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는데, 사회학에서 의미를 기본 개념으로 제안한 것은 루만이 처음은 아니다. 이때 이 개념은 베버의 고전 사회학에서 사회학의 영역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베버에게 의미는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는, 즉 자신의 관점에서 행위가 갖는 의미이다. 따라서 베버는 주관적으로 의미를 행위자가 의도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베버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행위는 비록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수반되고, 그 의미가 그 행위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에게서 이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버는 주관적 의미를 객관적 의미와 구분한다. 베버의 이론에서 주관적 의미는 행위 주체의 의미, 객관적 의미를 배제함으로써, 즉 관찰자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 형성된다. 물론 이때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는 관찰자가 해석하는 의미로 축소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결코 사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찰자가 관찰한 행위를 객관적 해석 틀에 정리하듯이, 행위자도 관찰자와 공유하는 해석 틀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2단락. 상술. 논리모순. 처리불가

이처럼 베버는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의 구분을 통해 사회적인 의미의 생성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행위 개념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위와 연관되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끌어 내는 행위로 정의된다. 즉 사회적 의미는 행위자와 관찰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이해된 것으로, 사회적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3단락. 정보불충분. 처리불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조적 의미 개념은 행위자의 1.주관을 통해 표현된다. 그렇지만 루만은 그러한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주체가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주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논의하여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이와 같이 의미 개념을 주체의 관점에서 다루게 되면, 개별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4단락.

루만은 행위 주체로부터 독립되어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상징함으로써, 체계의 복잡성을 축소시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루만의 의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험과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세계와의 관계에서 체험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통보받기 때문에 행위로 현재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체험의 과부하는 복잡성과 우연성을 갖게 된다. 복잡성은 다양한 체험 중에서 실천적인 선택을 통한 행위를 강요하고, 우연성은 행위의 결과가 주는 실망의 위험을 허용한다. 이때 우연성이란 행위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체험의 과부하를 처리하는 수단이 바로 의미이다. 5단락. 정보불충분. 그런데 정보는 아. 처리불가...

의미는 어떤 사태의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성을 축소하고, 체험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수단이다. 의미는 의식(심리 체계)이 체험을 선택하여 행위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 이때 선택되지 않은 것은 폐기하지 않고 잠재화하는 방식으로 체험을 처리한다. 결국 의식을 통한 체험 처리는 복잡성의 축소와 보존을 동시에 실현하여, 선택되지 않은 것을 의식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 준다. 6.7단락. 필요시 발췌독.

루만의 체험과 행위 구분은 체계와 연관을 @ 가지는 개념이다. 심리 체계 A(사람 A)의 행위는 심리 체계 B(사람 B)에 의해 체험될 수 있다. 이때 심리 체계 A가 자신의 체험에서 통보된 복잡성을 축소(선택)하여 행위를 통해 심리 체계 B에게 통보하면, 심리 체계 B는 수신된 체험의 복잡성을 축소하여 행위를 통해 다시 심리 체계 A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은 의미를 통한 세계의 구성을 매개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루만의 체계 이론에서 의미는 행위자가 의도하는 어떤 목적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루만에게 의미는 체험 처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정 사건의 사건이다. 이렇게 심리 체계는 의미를 수단으로 하는 선택을 통해 복잡성을 축소하고 가능성을 현재화하여 행위하며, 나머지 가능성을 잠재화한다. 결론. 요약. 정리. 구조. 정보가치

\*[https://ko.wikipedia.org/wiki/%EB%8B%88%ED%81%B4%EB%9D%BC%EC%8A%A4\\_%EB%A3%A8%EB%A7%8C](https://ko.wikipedia.org/wiki/%EB%8B%88%ED%81%B4%EB%9D%BC%EC%8A%A4_%EB%A3%A8%EB%A7%8C)

\*<https://namu.wiki/w/%EB%8B%88%ED%81%B4%EB%9D%BC%EC%8A%A4%20%EB%A3%A8%EB%A7%8C>

\*<https://pierrebourdieu.tistory.com/74>  
 루만 관련 인터넷 검색 상단 결과입니다. 읽어보세요. 이해가 더 안 될 겁니다.

구체적 방법?  
 즉, 평가원,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상황/맥락에 맞게 의미 처리 해야만, 우리는 답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출제자 의도에 맞게, 입맛에 맞게.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편하게 한다.  
 기억하세요.  
 이게 시험의 본질입니다.  
 시험 점수 부여의 권력은 출제자에게 있습니다.  
 학생에게 없습니다.

자료관련문의 : 010-8388-5403 (배인호 국어 연구실) <https://forms.gle/Zpa8CZrCNf9id159> : 작가자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내신 국어 전문가 [WWW.KICEKOR.COM](http://WWW.KICEKOR.COM) 배인호 초격차 국어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체계 이론을 주창했다. 그는 복잡하게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세계의 다양한 복잡성을 포착하여 축소시켜 처리하는 것을 사회학의 목표로 삼았다. 루만은 **의미**를 자신의 이론에서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는데, 사회학에서 의미를 기본 개념으로 제안한 것은 루만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이 개념은 베버의 고전 사회학에서 사회학의 영역을 획정하는 데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1단락 정보 처리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체계 이론을 주창했다. 과거와 달리 전혀 중요할 것이 없는 초반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회학’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활용** 될까요?

과거 수능 혹은 초등~고1 수준이라면,

독일이니 아니니,

사회학이니 아니니 묻겠지만

현 수능에서는 당연히 처리되어 가치 없는 정보이니

쭈쭈 읽습니다만,

구조는 보입니다.

그는 복잡하게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세계의 다양한 복잡성을 포착하여 축소시켜 처리하는 것을 사회학의 목표로 삼았다.

역시 정보의 무게가 덜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출제 의도에 비추어 보면, 역시나 정보가치가 딱히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반복되는 말이 보입니다.

복잡, 복잡성을 포착, 축소

정리하면?

복잡 ⇨ 축소는 잡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복잡한 것을 축소시키는지 파악하는 것이 현 수능 출제 포인트입니다.

현 수능 출제 포인트는 위와 같이

**그래서, 어떻게?**입니다.

이것만 집중하기에도 우리의 피지컬 부족합니다.

물론 한 문장 한 문장이 이해되어야 나머지가 이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학 풀이 과정 과정을 처음에는 다 밝히고 처리하지만, 나중에는 암산으로 처리 하듯**

**우리가 영어 문장 수준 구문 독해 끊어읽기를 처음에는 다 밝히고 처리하지만,**

**나중에는 역시 쭈쭈 읽어나가듯**

무엇보다 수능 국어에서는 문장 수준의 정보처리하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보고, 사실 대단히 깊게, 논리학 수준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루만은 **의미**를 자신의 이론에서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는데,

작은 따옴표로 묶고 있고,

주제 흐름은 이론-기본개념

의미

가 아마도 글의 주제겠쥬.

흐름 잡습니다.

이미 이 개념은 베버의 고전 사회학에서 사회학의 영역을 획정하는 데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1단락 끝부분.

**역시 Topic Setting 되는 Hot Place**

그럼 주제는 루만과 베버의 견해일 것이고,

주제에 초점 두고 읽습니다.

거시적으로 봐야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체계 이론을 주창했다. 그는 복잡하게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세계의 다양한 복잡성을 포착하여 축소시켜 처리하는 것을 사회학의 목표로 삼았다. 루만은 **의미**를 자신의 이론에서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는데, 사회학에서 의미를 기본 개념으로 제안한 것은 루만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이 개념은 베버의 고전 사회학에서 사회학의 영역을 획정하는 데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베버에게 의미는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는, 즉 그 자신의 관점에서 행위가 갖는 의미이다. 따라서 베버는 일반적으로 의미를 행위자가 의도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베버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행위는 비록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수반되고 그 의미가 그 행위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회생활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버는 주관적 의미를 '개관적' 의미와 구분한다. 베버의 이론에서 '개관적 의미'는 행위 주체의 의미 생성 과정을 배제함으로써, 즉 관찰자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 형성된다. 물론 이때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는 관찰자가 해석하는 의미로 축소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결코 사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찰자가 관찰한 행위를 객관적 해석 틀에 정리하듯이, 행위자도 관찰자와 공유하는 해석 틀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2단락. 상술. 논리모순. 처리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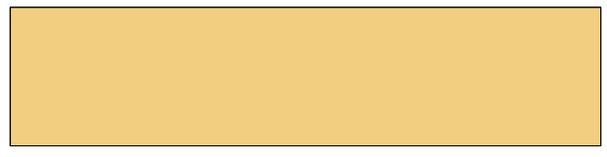
이처럼 베버는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의 구분을 통해 사회적 의미의 생성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행위 개념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위와 연관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끌어 내는 행위로 정의된다. 즉 사회적 의미는 행위자와 관찰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이해된 것으로, 사회적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3단락. 정보불충분. 처리불가**

이어지는 한 정보 균집입니다.  
 현 수능 지문은, 한 지문이 하나의 완결된 주제 흐름을 갖지 않습니다.  
 한 지문 안에 여러 정보 균집/주제가 배치되고, 평소의 우리 관습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정보 균집을 독립적으로 처리해야만 정보간의 관계-복잡성이 줄어들고, 그래야만 혼란이 줄어들면서 좀 더 편한 정보 처리가 됩니다.

베버에게 의미는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는, 즉 그 자신의 관점에서 행위가 갖는 의미이다.

위의 2단락 첫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처리하여 아래의 상자에 적어봅시다.



쉽지 않은 이유는  
 문장 구조 자체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 번 세 번 읽어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현 수능은 절대로 처리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가원이 의도하는대로  
 유연하게 정보처리 역량을 써야하는데  
 단순하게  
 모든 단어 모든 문장 모든 정보를 다 뚫어낸다고 접근한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베버에게 의미는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는, 즉 그 자신의 관점에서 행위가 갖는 의미이다.

**미시적 정보 처리 ⇨ 문장 구조 syntax 잡기**

베버에게 의미는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는, 즉 그 자신의 관점에서 행위가 갖는) 의미이다.

베버에게 / 의미는 / (...) / 의미이다.  
**Ad / S / a / V**

베버에게 있어서, 의미는 ( ) 의미이다.  
 결국 괄호 안의 정보가 핵심.

(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는 )  
**S = S / V**  
 즉 ( ) / 그 자신의 관점에서 / 행위가 갖는 /  
**= a + a + ad / S V /**

정리하면  
 행위자 자신의 의도 = 그(행위자) 자신의 관점에서  
 행위자 갖는 의미  
 라는 것인데.

이해 되세요?  
안 되는 것이 정상인 이유는

베버의 주장인 '의미'가 갖는  
완결된 정보를  
출제 과정에서 2단락으로 바꾸면?

- 1. 생략
- 2. 압축
- 3. 왜곡
- 이 과정에서
- 4. 논리적 완결성 부족
- 5. 정보 완결성 부족
- 즉, 처리 불가
- 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어차피 처리가 안 될 정보에

- 1. 시간
  - 2. 집중력
  - 3. 피로도
  - 4. 정보처리 능력
- 모든 것이 손해입니다.  
그러니 뒤로 갈수록 무슨 말인지

- 1. 기억도 안 나고
  - 2. 이해도 안 되고
  - 3. 시간만 쓰게 되고
- 이런 미련한 짓은 이제 그만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접근과 설명은 최대한 줄일 예정인  
이유는,  
이런 기존의 잘못된 습관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려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언급 자체가  
잘못된 습관을 환기하여  
잘 하는 학생들의 자세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베버에게 의미는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는, 즉 그 자신의 관  
점에서 행위가 갖는 의미이다. 따라서 베버는 일차적으로 의미  
를 행위자가 의도한 주관적인 것으로 본다. 그런데 베버의 의  
미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행위는 비록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수반되고, 그 의미가 그  
행위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에 의해서 이  
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버는 '주관적' 의미를 '객  
관적' 의미와 구분한다. 베버의 이론에서 객관적 의미는 행위  
주체의 의미 구성 과정을 배제함으로써, 즉 관찰자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 형성된다. 물론 이때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는 관  
찰자가 해석하는 의미로 축소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  
것은 결코 사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찰자가 관  
찰한 행위를 객관적 해석 틀에 정리하듯이, 행위자도 관찰자와  
공유하는 해석 틀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베버에게 의미는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는, 즉 그 자신의 관  
점에서 행위가 갖는 의미이다. 따라서 베버는 일차적으로 의미  
를 행위자가 의도한 주관적인 것으로 본다.

이제는 처리가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  
행위자 자신 의도, 자신의 관점, 행위자가 의도 =  
주관.  
주제 = 바꿔쓰기(paraphrase)  
아! 결국 1. 주관적 의미구나!  
라고 처리하면 깔끔합니다.

그런데 베버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행위는 비록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수반  
되고, 그 의미가 그 행위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에 의해서 이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버는  
'주관적' 의미를 '객관적' 의미와 구분한다.

이러지는 처리 역시 간단한 것이  
1.주관적 의미 vs 2.객관적 의미 처리하면 바로 깔끔!  
하향식 (배경지식의 활용)  
우리의 기본 상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 생각,  
즉, 주관적 의미로 정보/의미 처리를 시작하지만,  
결국 상대방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해,  
즉, 객관적 의미가 될 수 밖에 없구나.  
라는 초등학교 수준의 단어와 경험을 연결하기만 해도  
처리 됩니다.

즉, 출제자-의도는 간단히

1. 주관적 의미

vs

2. 객관적 의미

이구나 끝.

문제는?

베버의 이론에서 객관적 의미는 행위 주체의 의미 구성 과정을 배제함으로써, 즉 관찰자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 형성된다. 물론 이때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는 관찰자가 해석하는 의미로 축소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결코 사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찰자가 관찰한 행위를 객관적 해석 틀에 정리하듯이, 행위자도 관찰자와 공유하는 해석 틀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객관적 의미는 행위 주체의 의미 구성 과정을 배제함으로써, 즉 관찰자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 형성된다.

2. 객관적 의미

= 관찰자의 해석과 이해

= 행위 주체(주관)의 의미 구성 과정 배제

즉, 객관적 의미? 1. 주관적 의미 배제 라는 말인데

= 2. 객관적 의미

강조 이죠?

하지만,

물론 이때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는 관찰자가 해석하는 의미로 축소되지 말아야 하지만

1. 주관적 의미

=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

= 관찰자가 해석하는 의미로 축소 안 됨

이러면 또

1. 주관적 의미 강조?

그럼에도 그것은 결코 사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2. 사적(주관)이지 않다? = 주관이 아니라 객관?

이러면 또

2. 객관적 의미 강조?

왜냐하면 관찰자가 관찰한 행위를 객관적 해석 틀에 정리하듯이, 행위자도 관찰자와 공유하는 해석 틀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건 또 뭘소리???

이게 처리가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 1. 전공자가 봐도 말이 안 되고
- 2. 전공지식 바탕 평가원 의도를 보면, 납득은 되지만
- 3. 일반인이 갖고 있는 논리적 틀로 바라보면

1. 주관적 의미가 강조된 것인지

2. 객관적 의미가 강조된 것인지

3.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인지

3가지 정보가 다 뒤섞여 있고

당연히 무슨 의미인지 해석-경우의 수가 늘고

그러면 당연히 혼란만 오고

현 수능 지문 특징	기존 방법. 손해	기존 방법의 결과
1. 생략 2. 압축 3. 왜곡 4. 논리적 완결 X 5. 정보 완결 X ↓ 처리불가	⇒ 1. 시간 2. 집중력 3. 피로도 4. 정보처리 능력	⇒ 1. 기억도 안 나고 2. 이해도 안 되고 3. 시간만 쓰고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폭파 후 재건축 해야합니다.

나는 수능 국어에 대해 1도 모른다

라는 자세로 접근하세요

그래야만

수업 내용 소화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접근법을 엮어 생기는 혼란 없어지고,

무엇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수업 내용 집중을 통해 이해 해야하는데, 과거 관습으로 처리하는 순간 충돌나서, 매우 피곤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1 T.S 루만. 베버. '의미'**  
→  
**2 베버의 '의미' 1**  
1. 주관적 의미  
2. 객관적 의미  
논리 완결성 부족, 정보 부족

딱 이렇게만 처리하세요.

이처럼 베버는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의 구분을 통해 사회적인 의미의 생성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행위' 개념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위와 연관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끌어 내는 행위로 정의된다. 즉 사회적 의미는 행위자와 관찰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이해된 것으로, 사회적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합니다.

- 1. 주관적 의미
- 2. 객관적 의미

그런데?

개인-주관적 의미에서 시작해  
주변-객관적 의미가 되는 순간  
'사회'가 되니  
사회-사회적 의미로 확장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역시 후반부 빨간 빗금은 정보 부족으로,  
완결된 처리가 안 됩니다.

하향식으로 지문 내용을 처리하면,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같아지고,  
그 과정이 사회적으로 일어나  
결국 모든 의미는 같아진다  
라고 설명이 있다면 이해가 되겠죠.

문제는

여러분이 위와 같이 처리가 가능한가?  
특수한 사례로, 피지컬이 아주 뛰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제+구조+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

**1 T.S 루만. 베버. '의미'**  
→  
**2 베버의 '의미' 1**  
1. 주관적 의미  
2. 객관적 의미  
논리 완결성 부족, 정보 부족  
**3 베버의 '의미' 2**  
3. 사회적 의미

이 정도는 누구나 처리할 수 있고

이것이 평가원에서 의도하는 정보처리입니다.

이유는?

이 시대 정보의 성격을 봅시다.

4 <sup>th</sup> 산업혁명 정보의 특징	해결 방법	정리하면?
1. Big data	⇒ 1. 내용이해 기본 2. 구조/관계처리 3. 정보가치판단 4. 의도/설계파악 5. 출제양상 파악	⇒ 1. 주제 2. 구조 3. 정보가치 4. 의도/설계 5. 출제양상
2. 정보구조복잡		
3. 정보완결성↓		
4. 정보관계파악↓		
5. 사회적 맥락↑		
6. 정보의 변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의미 개념은 행위자의 실행을 통해 표현된다. 그렇지만 루만은 그러한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주체가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주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논의하여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이와 달리 의미 개념을 주체와 분리시켜 다루게 되면, 개별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4단락 역시, 정보 완결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설계와 의도 파악 없이는 정보처리가 어려운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의미 개념은 행위자의 실행을 통해 표현된다. 그렇지만 루만은

위에서 : 베버의 생각 요약

그렇지만 : 베버의 생각과 차이

그렇다면? 2~3단락 정보 불충분한 부분이 처리 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의미 개념은 행위자의 실행을 통해 표현된다. 그렇지만 루만은

기존의 의미개념 = 행위자 실행을 통해 표현  
= 행위자 중점 = 1. 주관적 의미에 중점

그렇지만 루만은 = 다르겠죠?

그렇지만 루만은 그러한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주체가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주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논의하여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근거

1. 주관적 의미 = 의미를 주체가 구성  
= 주체와의 관련 속에서

비판

비과학적. 기존의 베버 견해 비판!

의와 분리 의미 개념을 주체와 분리시켜 다루게 되면, 개별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베버 = 주관 = 한계 : 비판근거

루만 = 의미 개념을 주체와 분리 ⇨ 보편

그렇다면, 의미개념을 주체와 분리한다? 그 방법?

이게 다시 정보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그것을 주제로 다룰테니 그 내용에 집중!

루만은 행위 주체로부터 독립되어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상징함으로써 세계의 복잡성을 축소시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루만의 의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험'과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세계와의 관계에서 체험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통보받기 때문에 행위로 현재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체험의 과부하는 복잡성과 우연성을 갖게 된다. 복잡성은 다양한 체험 중에서 실천적인 선택을 통한 행위를 강요하고, 우연성은 행위의 결과가 주는 실망의 위험을 허용한다. 이때 우연성이란 행위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체험의 과부하를 처리하는 수단이 바로 의미이다.

역시 처리가 쉽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한 바와 같습니다.

- 현 수능 지문 특징
1. 생략
  2. 압축
  3. 왜곡
  4. 논리적 완결 X
  5. 정보 완결 X
- ↓  
처리불가  
그렇다면?

체험과 행위의 구분 ⇨ 루만의 의미(주제) 개념 이해 주체가 잡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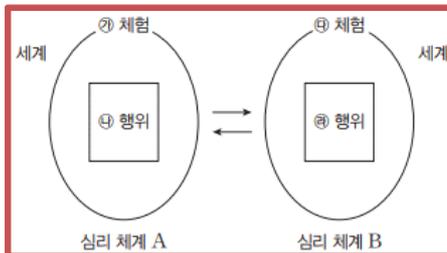
문제는 그 뒤의 상술 역시 처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문항설계/의도인데 뒤의 문제 풀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미는 어떤 사태의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성을 축소하고, 체험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수단이다. 의미는 의식(심리 체계)이 체험을 선택하여 행위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 이때 선택되지 않은 것은 폐기하지 않고 잠재화하는 방식으로 체험을 처리한다. 결국 의미를 통한 체험 처리는 복잡성의 축소와 보존을 동시에 실현하여, 선택되지 않은 것을 의식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 준다.

역시 이해는 잘 안 되더라도

설계/의도, 구조는 보입니다. 의미가 체험을 처리해 행위가 된다? 정도?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21번 문항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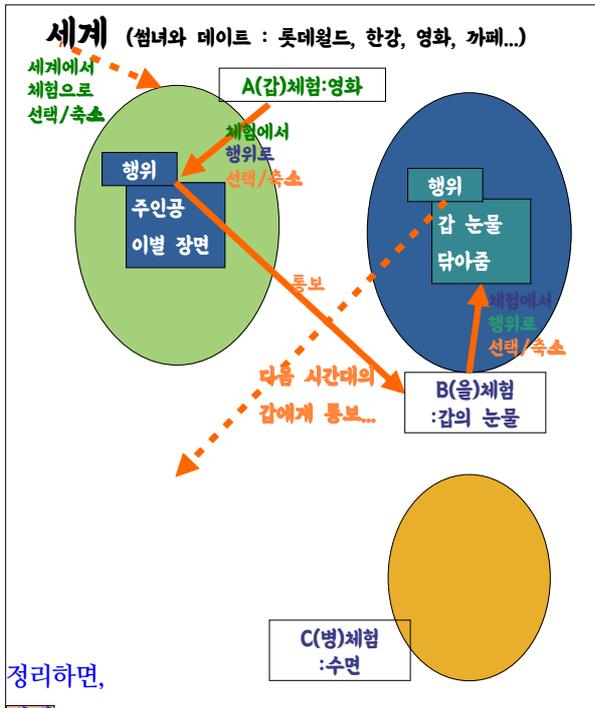


결국 이 지문은 이러한 도식화 처리를 의도한 것입니다.

도식화 바탕 이해하면 처리가 됩니다.

23번 예시를 바탕으로, 지문 내용을 적용/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시험이 끝나고 을과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는 중에 남녀 주인공의 이별 장면이 나오자, 갑은 눈물을 흘린다. 영화보다 갑을 더 신경 쓰던 을은 그런 갑을 위로하면서 손을 잡아 준다. 하지만 앞좌석의 관객은 영화 시작부터 계속 졸고 있다.



정리하면,

**세계**

세계 : 롯데 월드, 한강, 영화, 카페 등등에서

세계 ⇨ 선택/축소 ⇨ 체험

갑과 을은 우선 '영화'를 선택/축소하여 체험하고

**갑의 체험 : 영화 ⇨ 선택/축소 ⇨ 행위 : 이별 장면**

갑은 영화를 체험하는 중에 선택/축소 하여 이별 장면에 집중.

이는 다시 을에게 통보됩니다.

**갑의 행위 ⇨ 을에게 통보 ⇨ 을의 체험 : 갑의 눈물**

을은 갑의 눈물을 체험하고

**을의 체험 ⇨ 선택/축소 ⇨ 을의 행위 : 눈물 닦아 줌**

을은 눈물을 닦아 줍니다.

**병의 체험 : 수면**

병은 그냥 자고 있네요

이렇게 의미의 구성 과정과 요소를 상술 하는 한 지문이고, 우리는

글과 - 그림의 상호작용 - 도식화를 통해 정보처리가 가능합니다.

좀 더 상술하자면,

체험 (전) ⇨ 선택/축소 ⇨ (후) 행위

선택/축소 전 = 체험

선택/축소 후 = 행위

가 되는데,

따라서,

체험 = 잠재되어 있음, 많음, 과부하, 복잡/우연성

행위 = 선택되어 현재화 됨. 복잡성 축소.

와 같은 세부/부수적 정보는 이렇게 핵심/정보가지 높은 내용을 처리하고 나면 자동으로 따라 붙게됩니다.

(더 자세한 상술은 수업 영상 참조 바랍니다)

루만은 행위 주체로부터 독립되어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상징함으로써 세계의 복잡성을 축소시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루만의 의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험'과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세계와의 관계에서 체험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통보받기 때문에 행위로 현재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체험의 과부하는 복잡성과 우연성을 갖게 된다. 복잡성은 다양한 체험 중에서 실천적인 선택을 통한 행위를 강요하고, 우연성은 행위의 결과가 주는 실망의 위험을 허용한다. 이때 우연성이란 행위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체험의 과부하를 처리하는 수단이 바로 의미이다.

의미는 어떤 사태의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성을 축소하고, 체험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수단이다. 의미는 의식(심리 체계)이 체험을 선택하여 행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 이때 선택되지 않은 것은 폐기하지 않고 잠재화하는 방식으로 체험을 처리한다. 결국 의미를 통한 체험 처리는 복잡성의 축소와 보존을 동시에 실현하여, 선택되지 않은 것을 의식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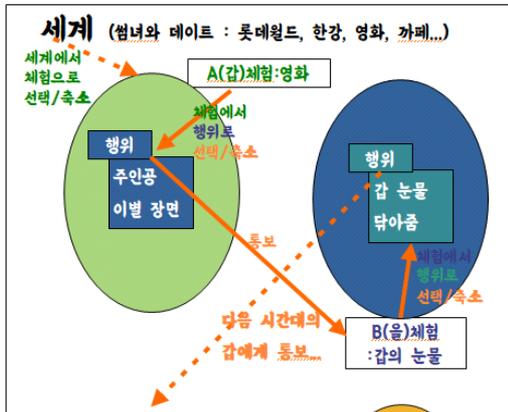
루만의 체험과 행위 구분은 체계와 연관을 ④ 가지는 개념이다. 심리 체계 A(사람 A)의 행위는 심리 체계 B(사람 B)에 의해 체험될 수 있다. 이때 심리 체계 A가 자신의 체계에서 통보된 복잡성을 축소(선택)하여 행위를 통해 심리 체계 B에게 통보하면, 심리 체계 B는 수신된 체험의 복잡성을 축소하여 행위를 통해 다시 심리 체계 A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은 의미를 통한 세계의 구성을 매개한다.

지문 내용과 해설을 관련지어 다시 봅니다.

결국,

<b>1 T.S 루만. 베버. '의미'</b>
<b>2 베버의 '의미' 1</b>
1. 주관적 의미 2. 객관적 의미 논리 완결성 부족, 정보 부족
<b>3 베버의 '의미' 2</b>
3. 사회적 의미
<b>4 PS T.S</b>
P 베버 : (주관적 의미 중시) S 루만 : 보편(객관적?사회적?)
<b>5 루만 '의미'의 원리</b>
세계 ⇨ 체험 ⇨ 선택/축소 ⇨ 행위 논리 완결성 부족, 정보 부족
<b>6 루만 '의미'의 원리+부연</b>
체험 ⇨ 선택/축소 ⇨ 행위 나머진 처리.불.가
<b>7 루만 '의미'의 원리 적용</b>
예시로 이해. 도식화 필요성.
<b>8 결론. 요약정리</b>
(베버) vs 루만

+



도식화로 정보 처리 끝!

마지막 결론 단락인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루만의 체계 이론에서 의미는 행위자가 의도하는 어떤 목적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루만에게 행위는 체험 처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정 시점의 사건이다. 이렇게 심리 체계는 의미를 수단으로 하는 선택을 통해 복잡성을 축소하고 가능성을 현재화하여 행위하며, 나머지 가능성을 잠재화한다.

역시 의도와 구조를 보면 편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루만의 체계 이론에서 의미는 행위자가 의도하는 어떤 목적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2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루만은 의미를 주체의 실행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본다.
- ② 루만에게 사회학의 목표는 세계에서 통보되는 다양한 복잡성을 축소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 ③ 루만은 의미를 통해 현재에는 배제된 체험이 미래에는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 ④ 베버에게 객관적 의미는 관찰자의 해석을 통한 것으로, 행위자의 의미 구성 과정은 배제된다.
- ⑤ 베버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한 의미라 해도 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관찰자와 공유하는 지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바로 1번 정답!

글을 요약 정리하는 결론 단락이

글의 주제+구조를 함축하여 출제하는 첫 문항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출제 과정에서 당연합니다.

글의 주제는?

베버

1. 주관적 의미 ⇨ 2. 객관적 의미 ⇨ 3. 사회적 의미

특히 1. 주관적 의미

vs

루만

P - S

P : 베버의 주관적 의미 중점 ⇨ S : '의미'로 보편화

① 루만은 의미를 주체의 실행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본다.

주체의 실행? = 1. 주관적 의미 = 베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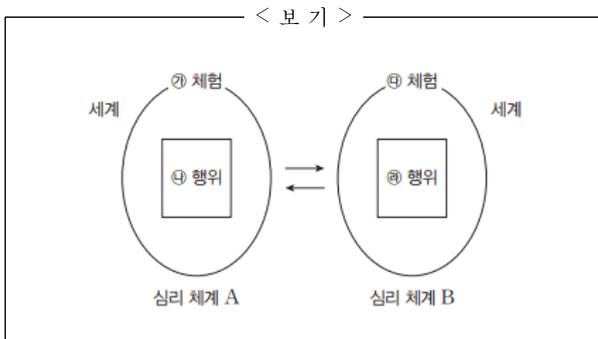
선지는 루만. 틀렸군!

**아...역시 주제 + 구조 정답!**

실전에서의 흐름을 다시 잡으면

1. 지문-구조-주제-정보가치에 집중하며 처리  
20번 문제 풀며, 다시 한 번 전체 포괄적 주제에 집중  
21번 문제 풀며, 4~7단락 처리 안 된 내용을 도식화  
정보 후처리.

21.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해 찾은 루만의 '의미' 관련 자료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㉓가 지닌 우연성으로 인해 ㉔는 심리 체계 A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연성? 세부 정보가 처리가 안 되면  
필요시 좁히고 발췌독. 일단 거시정보로 털고 넘김.

② ㉓와 ㉔는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로부터 각 심리 체계로 통보되는 것으로, 현재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현재화?  
필요시 좁히고 발췌독. 일단 거시정보로 털고 넘김.

③ ㉓와 ㉔는 복잡성과 우연성을 지닌 것으로, 의미는 ㉓와 ㉔를 축소, 선택하여 처리함으로써 ㉓와 ㉔를 가능하게 한다.

복잡성과 우연성??  
필요시 좁히고 발췌독. 일단 거시정보로 털고 넘김.

④ 심리 체계 A의 ㉓는 심리 체계 B에게 ㉔로 통보되고, 심리 체계 B는 의미를 통해 이것을 축소하여 다시 심리 체계 A에게 통보한다.

정확한 주제 원리 이해. 맞는 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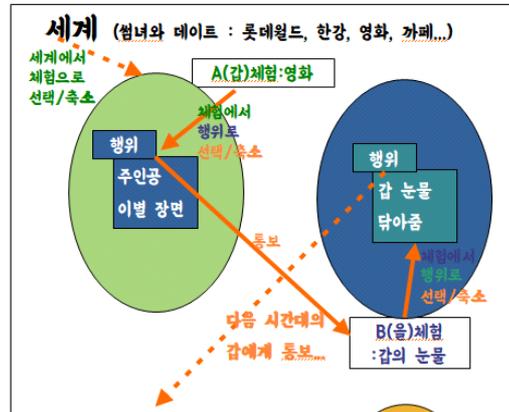
⑤ 심리 체계 A에서 의미를 통해 선택되지 않은 ㉔는 심리 체계 B에게 잠재화되어 ㉔로 남아 있게 된다

일단 거시정보로 털고...

응??

A에 있어서 선택 안 된 정보가

왜 B에 통보 되어 잠재??



녹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A에 잠재되어 있고  
A체험(녹색)에서 선택/축소 되어 행위(파란색)이 되어  
그 파란색이 B에게 통보된 건데?  
그럼 A의 체험(녹색)은 A에 잠재되어야지!  
정답 5번

아...역시 설계.

즉, 1~4번의 정보처리 과정, 도식에 대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지문 원리 이해가 되면?  
5번 선지를 고를 수 있게끔 흐름을 잡았습니다!

22. 윗글의 ‘베버’와 ‘루만’이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을 추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동학 농민 운동’은 1894년 전라도 고부의 동학 접주 전봉준 등을 지도자로 삼아,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전개되었다. 음력 1월 10일, 전라도 고부 농민들이 군수의 가렴주구를 견디다 못해 들고일어났고, 동학 접주인 전봉준이 이끈 농민들은 군수 조병갑을 몰아내고 관아를 점령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에서 보낸 관리가 오히려 농민을 탄압하면서 고부 봉기는 농민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전라도 감영군을 대파했고, 정부가 보낸 중앙군마저 물리치고 전주성을 점령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했고, 조선의 상황을 주시하던 일본도 군대를 보냈다. 농민군은 청나라와 일본이 간섭할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전주성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하지 않고, 조선을 압박했다. 조선 정부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2차 봉기가 일어났고 전라도를 넘어 충청·경상·황해·강원도에서도 봉기에 참여했다. 전봉준이 이끈 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 부대와 공주 우금치에서 혈전을 치렀지만 결국 패했다.

보기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의도/설계 못 잡으면 쓸데 없이 동학농민운동 정보만 머리에 남고, 문제 풀이에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이 유형은

1. 지문 위계 = 보기 위계 동일하면

=> 비교 대조 문항

2. 지문 위계(추상/일반) > 보기(구체/사례) 이면

=> 지문 원리를 보기에 적용하는 유형입니다.

① 베버의 입장에서서는 전라도 고부의 봉기가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한 사회적 행위라는 측면에서, 지배층의 가렴주구에 대한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의 저항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군.

② 베버의 입장에서서는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 농민 운동이 충청·강원 등으로 확산된 것에 대해, 의미가 전라도를 넘어 다른 지역 사람들의 행위와 연관되면서 사회적 행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

**2|3 단락 베버의 '의미' 1**

1. 주관적 의미  
2. 객관적 의미  
3. 사회적 의미

바로 갠춘!

**5 루만 '의미'의 원리**  
세계  
⇨ 체험 ⇨ 선택/축소 ⇨ 행위  
논리 완결성 부족, 정보 부족

**6 루만 '의미'의 원리+부연**  
체험 ⇨ 선택/축소 ⇨ 행위  
나머진 처.리.불.가

③ 루만의 입장에서서는 전라도 고부에서의 봉기를 당대의 부패와 모순 해결이라는 '의미'에 의해 선택되어 현재화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군.

의미 : 체험(잠재) ⇨ 선택/축소 ⇨ 행위(현재화)

④ 루만의 입장에서서는 전주 화약을 외세 개입 반대라는 '의미'를 매개로 선택된 행위로 보면서 조선 내부의 다른 문제는 잠재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의미 : 체험(잠재) ⇨ 선택/축소 ⇨ 행위(현재화)

∴ 외세와의 갈등이 선택. 나머지 문제는 잠재!

⑤ 루만의 입장에서서는 일본군과 관군 연합 부대의 승리는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의 개입에 대한 반대가 '의미'를 매개로 배제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X

의미 : 체험(잠재) ⇨ 선택/축소 ⇨ 행위(현재화)

∴ 농민의 선택 = 일본 개입에 대한 반대 = 전쟁 배제가 아닌 선택!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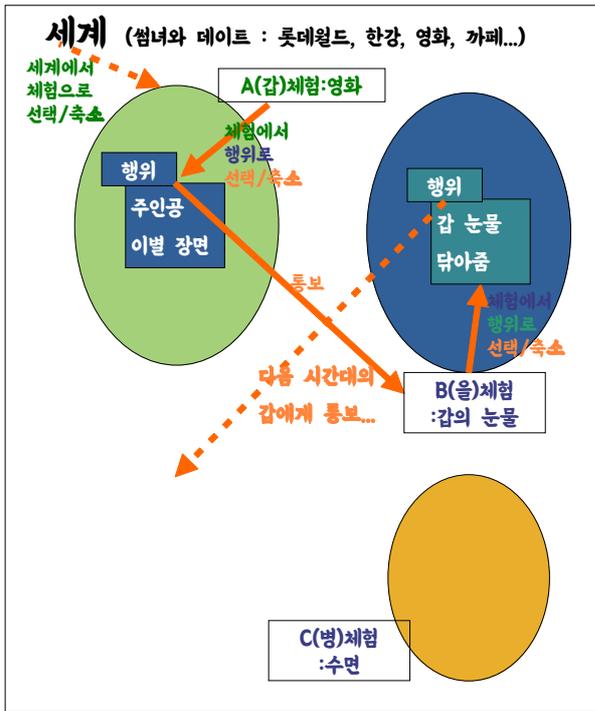
**아... 역시 주제-구조-원리 이해 적용!**

23. 윗글의 ‘루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갑은 시험이 끝나고 을과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는 중에 남녀 주인공의 이별 장면이 나오자, 갑은 눈물을 흘린다. 영화보다 갑을 더 신경 쓰던 을은 그런 갑을 위로하면서 손을 잡아 준다. 하지만 앞좌석의 관객은 영화 시작부터 계속 졸고 있다.

아까의 도식화!



**아... 역시 주제-구조-원리 이해 적용!**

정답!  
 발췌독 백날. 안 됩니다.  
 선생님의 친절한 해설?  
 여러분 실전에서 가능한가요?

주제/구조/정보가치 처리.  
 가능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다음 장의 정리로 마지막 정리 후 이어집니다.

① 감과 을이 영화를 보러 간 것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세계에서 행위로!**

② 이별 장면에서 감이 슬픔을 느낀 것이라면 눈물을 흘리는 행위는 슬픔이라는 '의미'에 의해 선택된 것이겠군.

**체험 : 영화 ⇨ '이별 장면' 선택/축소 ⇨ 행위 : 눈물**

③ 감의 눈물은 을에게 '체험'으로 통보되고, 을은 이에 대해 위로의 '의미'로 '체험'을 축소하여 손을 잡아 준 것이겠군.

**감 : 행위 : 눈물 ⇨ 을에게 통보 ⇨ 을 : 체험  
 ⇨ 선택/축소 ⇨ 손 잡아 줌**

④ 남녀 주인공의 이별 장면은 감, 을 모두에게 '의미'를 통해 축소 처리되어 선택된 체험이라 할 수 있겠군.

**을은 감의 눈물만 보는데?**

정답!

⑤ 줄고 있는 앞좌석의 관객에게 영화 장면은 심리 체계로 통보되지 않은 '세계'에 해당하겠군.

**맞음. 안 보고 있으니 체험 자체 X**

**세계에 존재. 보기 시작해야 체험!**



독일의 사회학자 니콜라스 루만은 체계 이론을 주창했다. 그는 복잡하게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세계의 다양한 복잡성을 포착하여 축소시켜 처리하는 것을 사회학의 목표로 삼았다. 루만은 의미를 자신의 이론에서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는데, 사회학에서 의미를 기본 개념으로 제안한 것은 루만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이 개념은 베버의 고전 사회학에서 사회학의 영역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베버에게 의미는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는, 즉 자신의 관점에서 행위가 갖는 의미이다. 따라서 베버는 주관적으로 의미를 행위자가 의도한 주관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베버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행위는 비록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수반되고 그 의미가 그 행위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객관화되면서 이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버는 주관적 의미를 객관적 의미와 구분한다. 베버의 이론에서 주관적 의미는 행위 주체의 의미 생성을 배제함으로써, 즉 관찰자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 형성된다. 물론 이때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는 관찰자가 해석하는 의미로 축소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결코 사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찰자가 관찰한 행위를 객관적 해석 틀에 정리하듯이, 행위자도 관찰자와 공유하는 해석 틀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베버는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의 구분을 통해 사회적 의미의 생성을 설명하면서 '합회적 행위' 개념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위와 연관되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끌어 내는 행위로 정의된다. 즉 사회적 의미는 행위자와 관찰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이해된 것으로, 사회적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루만의 체계 이론에서 의미 개념은 행위자의 의도를 통해 표현된다. 그렇지만 루만은 그러한 접근 방법의 기본적으로 의미를 주체가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주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논의하여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이와 같이 의미 개념을 주체와 관련시켜 다루게 되면, 개별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루만은 행위 주체로부터 독립되어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상징함으로써 체계의 복잡성을 축소시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루만의 의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험과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세계와의 관계에서 체험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통보받기 때문에 행위로 잠재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체험의 과부하는 복잡성과 우연성을 갖게 된다. 복잡성은 다양한 체험 중에서 실천적인 선택을 통한 행위를 강요하고 우연성은 행위의 결과가 주는 실망의 위험을 허용한다. 이때 우연성이란 행위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체험의 과부하를 처리하는 수단이 바로 의미이다.

의미는 어떤 사태의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성을 축소하고, 체험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수단이다. 의미는 의식(심리 체계)이 체험을 선택하여 행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 이때 선택되지 않은 것은 폐기하지 않고 잠재화하는 방식으로 체험을 처리한다. 결국 의미로 통칭 체험 처리는 복잡성의 축소와 보존을 동시에 실현하여 선택되지 않은 것을 의식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 준다.

루만의 체험과 행위 구분은 체계와 연관을 갖는 개념이다. 심리 체계 A(사람 A)의 행위는 심리 체계 B(사람 B)에 의해 체험될 수 있다. 이때 심리 체계 A가 자신의 체험에서 통보된 복잡성을 축소(선택)하여 행위를 통해 심리 체계 B에게 통보하면, 심리 체계 B는 수신된 체험의 복잡성을 축소하여 행위를 통해 다시 심리 체계 A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은 의미를 통한 세계의 구성을 매개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루만의 체계 이론에서 의미는 행위자가 의도하는 어떤 목적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루만에게 의미는 체험 처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정 체험의 자신이다. 이렇게 심리 체계는 의미를 수단으로 하는 선택을 통해 복잡성을 축소하고 가능성을 현재화하여 행위하며, 나머지 가능성을 잠재화한다.

20. **결론 요약 정리. 구조, 정보 가치**  
 ㉑. **결론 요약 정리. 구조, 정보 가치**  
 ㉒. **결론 요약 정리. 구조, 정보 가치**
1. 루만은 의미를 주체의 실행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본다.
  2. 루만에게 사회학의 목표는 세계에서 통보되는 다양한 복잡성을 축소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주제, 바로 정답. 선지는 1. 주관적 의미 : 베버.**

**주제 + 구조**

**베버 : 1. 주관적 의미 중시 vs(구조:대조)**

**루만 : 베버 한계 비판. 체험 ⇨ 선택/축소 ⇨ 행위**

3. 루만은 의미를 통해 현재에는 배제된 체험이 미래에는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4. 베버에게 객관적 의미는 관찰자의 해석을 통한 것으로, 행위자의 의미 구성 과정은 배제된다.
5. 베버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한 의미라 해도 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관찰자와 공유하는 지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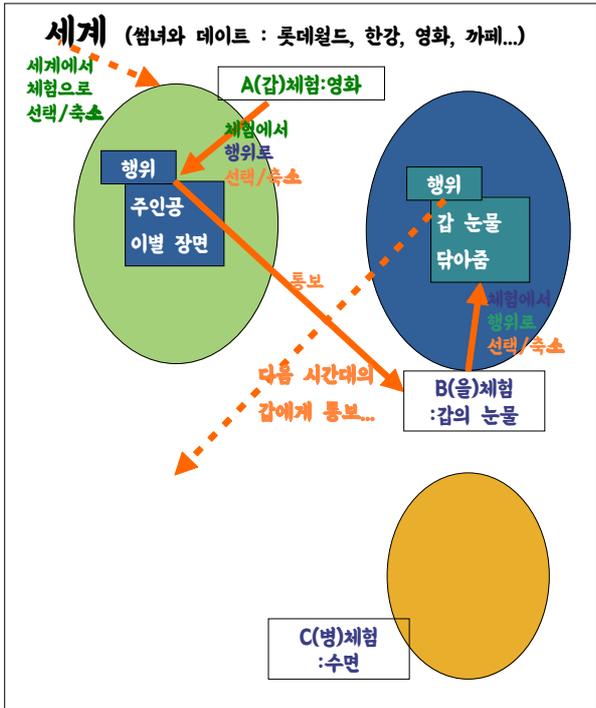
21.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해 찾은 루만의 '의미' 관련 자료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5. 심리 체계 A에서 의미를 통해 선택되지 않은 ㉒는 심리 체계 B에게 잠재화되어 ㉓로 남아 있게 된다.

**주제 + 의미 이해 + 보기 적용**

**A체험(잠재)⇨선택/축소⇨A행위(현재)⇨통보⇨B체험**

**왜 B에 잠재? A에 잠재지! 정답!**



- ① ㉠이 지닌 우연성으로 인해 ㉡는 심리 체계 A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② ㉠과 ㉡는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로부터 각 심리 체계로 통보되는 것으로, 현재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나.
- ③ ㉠과 ㉡는 복잡성과 우연성을 지닌 것으로, 의미는 ㉠과 ㉡를 축소, 선택하여 처리함으로써 ㉢와 ㉣를 가능하게 한다.
- ④ 심리 체계 A의 ㉢는 심리 체계 B에게 ㉣로 통보되고, 심리 체계 B는 의미를 통해 이것을 축소하여 다시 심리 체계 A에게 통보한다.

22. 윗글의 '베버'와 '루만'이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을 추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베버의 입장에서는 전라도 고부의 봉기가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한 사회적 행위라는 측면에서, 지배층의 가렴주구에 대한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의 저항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베버의 입장에서는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 농민 운동이 충청·강원 등으로 확산된 것에 대해, 의미가 전라도를 넘어 다른 지역 사람들의 행위와 연관되면서 사회적 행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

**주제 + 구조**

베버 : 1. 주관적 의미 ⇨ 2. 객관적 의미 ⇨ 3. 사회적 의미

- ③ 루만의 입장에서는 전라도 고부에서의 봉기를 당대의 부패와 모순 해결이라는 '의미'에 의해 선택되어 현재화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루만의 입장에서는 전주 화약을 외세 개입 반대라는 '의미'를 매개로 선택된 행위로 보면서 조선 내부의 다른 문제는 잠재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루만의 입장에서는 일본군과 관군 연합 부대의 승리는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의 개입에 대한 반대가 '의미'를 매개로 배제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주제 + 구조 + 원리 이해 + 보기/선지 적용**

루만 : 체험(잠재) ⇨ 선택/축소 ⇨ 행위(현재화)  
 ∴ 농민의 선택 = 일본 개입에 대한 반대 = 전쟁 배제가 아닌 선택! 정답!

23. 윗글의 '루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갑은 시험이 끝나고 을과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는 중에 남녀 주인공의 이별 장면이 나오자, 갑은 눈물을 흘린다. 영화보다 갑을 더 신경 쓰던 을은 그런 갑을 위로하면서 손을 잡아 준다. 하지만 앞좌석의 관객은 영화 시작부터 계속 졸고 있다.

- ① 갑과 을이 영화를 보러 간 것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주제 + 구조 + 원리 이해 + 보기/선지 적용**

체험 ⇨ 선택/축소 ⇨ 행위 : 다양한 가능성 중에 영화! 선택/축소 행위!

- ② 이별 장면에서 갑이 슬픔을 느낀 것이라면 눈물을 흘리는 행위는 슬픔이라는 '의미'에 의해 선택된 것이겠군.

체험 ⇨ 선택/축소 ⇨ 행위 : 다양한 가능성 중에 영화 장면. 눈물!

- ③ 갑의 눈물은 을에게 '체험'으로 통보되고, 을은 이에 대해 위로의 '의미'로 '체험'을 축소하여 손을 잡아 준 것이겠군.

갑의 행위 ⇨ 을에 통보 ⇨ 을의 체험 ⇨ 선택/축소 ⇨ 을의 행위 : 다양한 가능성 중에 손 잡아 줌!

- ④ 남녀 주인공의 이별 장면은 갑, 을 모두에게 '의미'를 통해 축소 처리되어 선택된 체험이라 할 수 있겠군.

을은 갑의 행위를 체험하는데? 정답!

- ⑤ 졸고 있는 앞좌석의 관객에게 영화 장면은 심리 체계로 통보되지 않은 '세계'에 해당하겠군.

병은 졸고 있으니 체험 한 것이 없네!

따라서 세계에서 체험으로 통보 된 것 없음!

다시 한 번 평가원의 mind set  
'의미'에 대한 평가원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1. 상향식 독서 모형

단어 ⇨ 문장 ⇨ 문단 ⇨ 글 ⇨ 글+글  
의미를 내용과 구조 바탕 처리하기도 하며

2. 하향식 독서 모형

배경지식 ⇨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연결 - paraphrase  
⇨ 사회적 배경 바탕 자신의 지식으로 구성

즉, 위 지문에서와 같이,  
우리는 ①-1. 문자를 읽고, ①-2. 상향식 독서로 의미  
구성을 시작하여 ①-3. 하향식 독서로 자기 나름의

① 주관적 의미를 만들어 냅니다.

이후 주변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② 객관적 의미를 확장이 되고,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이므로

③ 사회적 의미로 구성됩니다.

이 ebs 기출 지문을 평가원에서 주목  
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은

① 올해 그리고 문이과 통합 내년 수능 대비로 새로 꾸려진  
'평가원 연구 교수진'의 최근 연구 논문 주제

② 이것이 현 평가원 시험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출인 2021학년도 9평을 보겠습니다.

오답률 top1. 38번 '비평'문 (feat. 비평교육)

즉,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를 확립한  
평가원의 관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일반은 그 관점을 아직 충분히 해석을 못 했으며, 준비도  
안 되었기 때문에,  
문학이 오답률 1등을 찍게 된 것이고.

20~25번 미학-예술 사조 (feat. 비평교육)

이러한 평가원의 문학 교육 관점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예술사조의 흐름과 관점을 정립하게 되는 지문이  
출제됩니다.

사실 이 흐름은

17학년도~19학년도까지 출제되었던 평가원 기출 비평지문

!연구실 : 출처 나열만

출처 작성 예시 : 23-9월 22~25 : 비평문 유형

출제예상 : ★★★★★ 100%

'수능 출제 기밀 누설'

- 기출+ebs 연계 흐름

- ① 17~19 비평 지문에서 연결되는 흐름과
- ② 14~20 기출 : 개념10%+주제(내용-정서-감정처리)90% 흐름
- ③ 다시 22예비평가 21-6월, 21-9월, 그리고 21 수능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존재하며
- ④ 올해 ebs에도 이런 예시가 잘 녹아 있습니다.

\*비평교육과 이본교육은 현 평가원 교수님들의 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출제 100% 예상합니다.

22예비평가 22~25 : 비평문 유형

(feat. 비평교육+이본교육 이룬 setting)



21-9평 20~25 : 비문학 예술 소재 : '예술사'조

(feat. 미학 : 예술 정의 - 현, 평가원 관점 뒷받침 근거)



21-9평 38~42 : 비평문 유형 '문학작품 의미 생성'

(feat. 현 평가원 출제 교수의 관점 확립)



예시

올해 ebs 연계교재 예시 "21 수록 문학 235~237p

(feat. 현 평가원 출제 집단의 ebs연계교재 version)

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니,  
꼭 위의 흐름 잘 잡아보시기 바라고,

**‘앞으로 학습 방향’**

1. 최소한 풀이
2. 시간이 있다면 원론서 정독
3. 가능하다면 보충수업 영상 까지 활용

(기존 수강생들은 0. 수업 필기 복습으로 충분!)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의미란 결국 사회적 의미가 됩니다.  
수능 시험이란 결국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학적 관습,  
좀 더 정확히는  
평가원 연구 교수 mind set 기반의  
문학적 관습이  
작품 감상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문학 감상을 A로 해야 한다는  
고민과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논문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당위성을 확립한 뒤, 그것을 근거로,  
수능 시험까지 이어 하나의 기준으로서 확립한 뒤에  
앞으로 시험 출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평가원의 mind set ‘문학’ 완료.**

**\*\*참고. 문학 원론 정독 바탕, 문학 보충 교재로 1일  
완성 학습, 이후, 14~22 기출 적용이면, 90% 완성,  
나머지 5%는 ebs 연계 적용, 나머지 5%는 실전 연습.**

**\*\*\*여기 잠깐, 문법/화작문 : 보충커리큘럼 영상 및 교재  
참조**

**\*\*\*\*이제, 독서**  
이어지는 평가원의 mind set  
독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19수능 만점자 148명에  
Q. ‘가능세계’ 지문 복수정답?

Q. ‘우주론’ 출제오류?

등등의  
끝도 없는 째소리들이 나오니  
평가원에서는  
교수님들이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도, 평가원 오피셜, 공.문.서로!

**평가원의 ‘독서’ mind set**

- ① 독서 :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의 내용의 대화적 활동<sup>3)</sup>
- ② 읽고 이해 차원을 넘는, 4<sup>th</sup> 산업혁명 시대 요구되는 정보처리 능력<sup>4)</sup>
- ③ 의사소통 행위, 문제해결 행위, 지식구성 행위<sup>5)</sup>

3)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대비 학습방법 안내 문서  
4) 평가원 연구 논문  
5) 수능 시험 범위인 ‘교육과정’

**평가원의 '독서' mind set 세부 '각론'**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 ①-1. 시각-기호 처리 : 문자를 읽고
- ①-2. 단어 처리 : '단어'의미 파악
- ①-3. 문장 처리 : '단어'+ '문법구조' 바탕 '문장' 의미 파악
- ①-4. 문단 처리 : '문장'+ '문장'관계 바탕 의미 파악
- ①-5. 글 처리 : '문단'+ '문단'관계 바탕 의미 파악

\*글의 전개방식, 글의 구성원리 독서 기본개념/원리 적용  
 \*\*위의 과정을 상향식 독서 모형이라 하며, 동시에  
 \*\*\*하향식 독서 모형

②-1. 독자 나름의 이해 :  
 위의 정보처리 + 독자의 배경지식 + 독자의 정보처리 구조  
 + 정보처리 방식 바탕 + 독자의 지식으로 새롭게 구성  
 \*\*\*\*여기에 추가적으로 평가원에서는

1. 정보-내용
2. 정보-구조/관계
3. 정보가치
4. 의도/설계
5. 출제관습

까지도 처리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수능을 출제합니다.

**현 시점 평가원의 '독서' mind set '정보의 특징'**

4차 산업 혁명의 변화에 따라... Big Data  
 따라서, 지금의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정보처리 능력은

1. 정보량은 폭발 ↓
2. 정보 완결성은 무너짐 ↓
3. 논리적 완결성도 무너짐 ↓

↓ 결과적으로...

처리불가  
 ↓ 해법은?

1.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 ⇨ 유의미한 정보처리
2. 구조+내용+가치+의도/설계 ⇨ 정보 완결성 보완, 처리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

**무엇보다 시험은 Time Attack**  
**지금의 정보처리도 정보의 유효기간 내 유의미한 처리 필수!**

더 이상

1.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꼼꼼하게 100% 모든 단어를 이해/ 기억하여
2. 선지 판단, 그 과정에서 와리가리 근거 찾기 절대로 불가능
3. 무엇보다, 그렇게 밑줄긋고 선지 판단 근거 잡아보면? 지문의 80%가 밑줄임. 해설이야 쉽지만... 실전에서 누가 가능???

세부적인 주제 하나 하나 살피겠습니다. 여백을 많이 들 테니, 필요하면 정리하시고, 특히 수업에서 ebs 연계/출제 가능 소재 정리 참고하여 정리 바랍니다.

**출제예상 : ★★☆☆☆ 다소 낮음**

**평가원의 ‘법’지문의 시작과 끝 mind set**

- ❶ 2017-9월 사단법인. 특히, 1단락  
(\*2017-수능 보험 지문)  
(\*2018-6월 유학-이기론-수량론-경제론-법제개혁론)
  - ❷ 2019-6월 민법-계약자유원칙 + 비례원칙(법체계)
  - ❸ 2019-수능 채권채무
  - ❹ 2020-9월 소유권  
\*출제예상 : 융복합-과학기술 발달 vs 사회/제도변화
  - ❺ 2021-6월 디지털세
  - ❻ 2021-9월 행정규칙
- \*정보량 폭발된 지문의 모든 정보 처리, 지문의 모든 내용 이해, 모든 선지 근거, 옳고 그름 잡다가 내년 수능입니다.  
\*시간 안에 절대로 안 됨. 의도도 아님.  
\*된다고 자부하시면 안 말림.  
\*올해 6/9에 연속 출제된 이유로 출제예상을 낮춤.

2017부터 흐름이 바뀌었고,  
더 이상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역시, 주제, 구조, 처리가능한 정보 집중.  
그렇게 지문과 선지의 설계를 확인하면,  
어느새 정답선지가 굉장히 부각됩니다.  
평가원의 의도와 설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인 time attack. 수능 시험 성격에 맞는 접근입니다.

- ❶ 2017-9월 사단법인. 특히, 1단락  
첫 세팅인 2017 6평 사단법인의 1단락을 보면  
앞으로의 지문에 대한 흐름 set이 있습니다.  
법 지문을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은  
\*헌법, 민법, 형법  
\*권리-의무  
\*현상→원리(법 조항 set)→사례 적용 / P-S...(반복)  
의 구조. 대륙법 특징에 따라, 우리나라 법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상들을 바탕으로, 법 조항이 성립되고,  
그렇게 성문화된 법률을 적용하는 하나의 큰 흐름 이해가 중요. 그렇게 한 정보 흐름과 문항 구성이 설계 됩니다.  
이후, 성문법 체계의 한계 때문에, 특이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흐름으로 문제-해결 구조가 이어집니다.

전공자, 특히 변호사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수능 ‘법’지문입니다. 이유는, 법률 전문가가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 고3이 국어교육학 base의 교육과정을 시험범위로 하는 시험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법’ 지문의 정보 구조와 설계**

- (\*2017-수능 보험 지문)  
이후 2017 수능 보험지문도  
1단락 주제 세팅이 2가지 - 경제/법  
그래서 첫 문제 정답 역시, 주제+구조

이후, 경제 - 공정한 보험이 핵심이고,  
수식 처리까지 하는 것이 보통 가장 납득하는 해법이지만,  
역시 수능 설계, 주제에 집중!

나머지 유형도 철저하게 주제 구조 집중하여 정보 처리 후 디테일을 잡아갑니다.

- (\*2018-6월 유학-이기론-수량론-경제론-법제개혁론)  
이어지는 2018-6월 법제개혁론 역시, 먼저 앞 부분에서는 조선의 근간이 되는 유학사상을 세팅  
이후에 법제 개혁론에 적용, P-S 구조 잡고, 적용하는 전형적인 구조 흐름이며,

나머지 지문들 또한 마찬가지로 흐름이니 꼭 원문서 참고하여 정리바랍니다.

- ❷ 2019-6월 민법-계약자유원칙 + 비례원칙(법체계)  
2019-6월 계약자유원칙 + 비례원칙에서는  
\*3법체계 : 상위법령 - 헌법 => 하위법령 - 민법 + 형법  
민법(사법) : 사인vs사인(개인vs개인)  
형법 : 개인vs국가(공권력 규정)  
의 원칙적 내용 흐름과  
  
\*민법은 자유가 원칙이나,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비례원칙으로 그 자유를 제한하는 원리를 설명하며  
  
\*1단락 예시, Q-A1, A2 흐름을 통해  
  
\*2,3,4 단락 표 그려 비교 대조

\*5단락 PS구조

처리 후 접근하면, 난이도가 상당히 편해지며

이 구조는 2021-9평 행정 규칙 지문으로 진화/발전되어 적용됩니다.

‘법’ 지문의 정보 내용 - 기출 ebs 연계

㉓ 2019-수능 채권채무

2019-수능에서는

2017-6월 사단법인 지문 1단락에 기준 잡은 내용 바탕

\*권리-의무 라는 ‘법’의 기본 구조에 따라

\*채권-채무 발생을 소재로, 거래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원리와 문제, 해법을 정리합니다.

특히, 논리구조 연습/확립에 좋으며, 법률 지문 연습으로 좋은 사례입니다.

이어지는 지문은

㉔ 2020-9월 소유권

2020-9평 소유/점유지문입니다.

역시 흐름 자체는

1단락에서 Q, P : 질문과 문제제기를 통해

2단락에서 그 답을 모색합니다.

즉, 점유 = 직접점유/간접점유 구분

3단락에서 정상거래 : 간접점유 = 소유

4단락에서 비정상거래 : 직접점유 또는 좀 더 강화된 간접점유 = 소유

흐름으로, 정립 후

소유권 개념 확립을 하는 내용/구조 특징이 있으니 역시 잘 기억해두시고,

이는 다시 올해에 이르러, 예상대로

자율주행, AI, 배송드론,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융복합 지문으로 발전합니다.

\*출제예상 : 융복합-과학기술 발달 vs 사회/제도변화

㉕ 2021-6월 디지털세

2020-6월 디지털세 지문은 이 흐름의 연장으로,

1단락에서 지적재산/특허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세팅

이후

2단락에서 글로벌 기업의 편법 탈세/절세 개괄 후

3단락에서 원리 설명 해법을 모색하고

이어지는 단락들에서는 독립정보군집으로,

1단락 내용을 이어 받아, 소득에 따른 지적재산/특허권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다룹니다.

정보량이 많고, 정보 축이 2개인데, 그 특징을 묻는다면,

**메트릭스, 스프레드 시트, 즉, ‘표’ 그려주세요.**

㉖ 2021-9월 행정규칙

지금까지의 연습의 끝에 있는 지문입니다.

특징은, 완결된 정보가 아닌데도 정보량이 많고,

따라서, 주제, 구조에 집중하며,

정보 후 처리 - 표처리가 생명입니다.

\*3법 체계. 즉, 헌법이 민법과 형법을 비롯한 법 체계를 바탕으로

\*3권 분립.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계 기반

\*왜 입법부의 역할을 행정부가 대신하거나 침범하게 되는지

1. 법체계에 의한 근거와

2.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대한 근거를

글의 초반부에 정립 후

이어지는 내용들에서는

구체적인 양상을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 생소한 법적/하지만 전공에서 보면 도무지 이상한 정보 나열이 되니

표를 그려 처리 해야만 전체 지문/세부 정보 개괄 되며

결국 정답도 주제-구조의 흐름 속에서 대부분 해결 되는 것임을 확인바랍니다.

**출제예상 : ★★★★★매우높음**

**평가원의 '경제' 지문의 시작과 끝 mind set**

\*추가 참고할 과거 기출 (기존 원론서에 압축 됨, 난이도/유형 차이로 다시 푸는 것 큰 의미 없음)

\*수요/공급 곡선

\*옵션

\*할인율

\*채권

① 2018-6월 통화정책

② 2018-수능 정책수단 + 오버슈팅

③ 2019-9월 CDS 프리미엄(글로벌 금융위기)

④ 2020-3월 학평 주식회사(2017-9월 사단법인 연계)

+순환출자(금융 자본주의 체제 setting)

⑤ 2020-6월 글로벌 금융위기 전 후의 경제 문제와 해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미시건전성

\*거시건전성

⑥ 2020-수능 BIS

**\*출제 예상**

① 올해 ebs 출제 관련 소재

\*MMT(Modern Monetary Theory : 현대 통화 이론)

\*Q.E(quantitative easing : 양적 완화)

\*1945년 광복 후에는 글을 모르는 봉사 즉, '문맹'이 문제

\*1980년대에는 '원칙'이 없어 '한글맞춤법'이 중요

cf) 문법과 맞춤법의 法은 다른 뜻임.

\*\*맞춤法 : 규범

\*\*\*문법(文法) : 문장의 원리/원칙. 즉, 완결된 의미 체계의 원리 원칙

**\*현대에는 경제문맹, 법문맹, 과학기술문맹, 철학문맹, 논리문맹, 예술문맹이 문제!**

**따라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특히, '경제'체제 변화흐름을 잡고,**

**최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존경제지식'이 필수**

우리는 교육을 왜 받아야하고,

국가는 왜 교육을 해야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대학수학능력 시험

즉,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에서

국어영역에서는 어떤 능력을 측정하고자 할까요?

매년 5000만 인구 수의 15%에 해당하는 '수치'

사기 범죄가 일어납니다. 매년.

<형법 제347조 (사기)>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본주의 시대.

Q. 자본주의란?

답변이 어렵다면, 다음의 짧은 글을 참고

(detail에서의 issue는 대학 가서서 채우시길.)

**1st impact 농업혁명. 문명과 인류의 시작**

**자유로운 존재에서 국가권력의 노예로 전략**

**vs 문명을 이루고,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서 존재 시작**

**생산수단 = 토지 = 토지 소유 = 생존이자 권력**

생산수단 = 토지 = 왕토사상 = 왕권 집중 + 관료에 권력 집중  
농경생활 ⇨ 생존 이상의 잉여 생산물 발생 ⇨ 생존 이외의 '인간 삶'의 시작 ⇨ 문명의 시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작 ⇨ 잉여 생산물 분배 = 정치의 필요 = 권력의 필요 ⇨ 계급의 발생 = 불평등의 시작 (feat. 따라서, 재앙의 시작이라 보는 관점 또한 존재)

**\*고대 : '국가'의 형성**

⇨ 풀벌을 하나의 군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듯이

⇨ 인류 역시 하나의 국가로서 존속 됨

⇨ 국가 권력의 정당성 부여 필요

⇨ '종교'의 발생 및 제도화

**\*중세 : '신'의 형성**

⇨ '인간'은 스스로를 볼 수 없었기에, 자신의 그림자를 보기 시작함. 그렇게 '신'에 대해 규정하고, 그것을 전지전능한 절대자로 인식

⇨ 왕권신수설. 농업혁명 이후 시작된 인류의 존재'국가'권력 유지를 위해

⇨ '토지소유권' 확립이 필요 ⇨ 왕토사상, 즉, 토지의 소유는 '왕'

⇨ 일부 사람의 반발에 대해 '신' '종교'로서 설득.

⇨ 미지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 = 신은 절대자로서 존재 = 왕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서 존재

**2<sup>nd</sup> impact 산업혁명. 인류의 '존재' 의미 변화 phase 1.**  
**육체 노동에서 자유 vs 노동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

\*생산수단 = 기계 = 기계소유 자본 = 자본 자체가 생산수단  
 \*중상주의  
 생산(부가가치 발생)수단 = 상업  
 = '배'+ '정보'소유 = 교환수단 '자본' = 자본 자체가 생산수단

문명의 발달 ⇨ 문명의 충돌 ⇨ 전쟁  
 ⇨ 상업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 인간의 지식 확장. 무지의 존재에서, 이성과 합리의 시대로  
 ⇨ '신'학의 신뢰 손실  
 ⇨ 철학의 필요

**3<sup>rd</sup> impact 정보화 혁명. 인류의 '존재' 의미 변화 phase 2.**

그리고, 지금 이 시대.

**4<sup>th</sup> 산업혁명.**  
**정신노동으로부터의 자유 vs 거대자본+기계의 노예로 전락**

\*생산수단 = 정보+정보활용 = 정보+AI소유 자본  
 = 자본 자체가 생산수단

원시시대에는 수렵 채집 능력이  
 농경시대에는 농업 능력이  
 중세시대에는 '신에 대한 섬김이'  
 1960년대에는 육사를  
 1990년대에는 법대와 의대를  
 그리고 지금은...

다시 초점을 잡습니다.

- \*추가 참고할 과거 기출 (기존 원론서에 압축 됨, 난이도/유형 차이로 다시 푸는 것 큰 의미 없음)
  - \*수요/공급 곡선
  - \*옵션
  - \*할인율
  - \*채권
- 위의 내용은 보충영상-원론서로 틀을 잡아드리고 있고, 이후 제공될 자료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평가원은 수능 시험 출제 원칙에 따라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시험범위라고 전제하고 출제합니다.

① 2018-6월 통화정책

현 수능 시험 경제 지문의 기점이 되는 지문입니다.

구조 자체는 매우 간단하여

1단락에서 경제 원리 전반에 대한 세팅 이후

2단락부터 통화정책에 중요한 2가지 요소

1. 선제성

3단락부터

2. 정책신뢰성

2-1. 준칙주의

4단락

2-2. 재량주의

틀을 잡습니다.

특히 1단락의 통화정책으로 경제정책 전반 흐름을 잡는 인과 원리는 이해/암기 바라며, 선제성, 정책 신뢰성도 최소한 이해 정도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6평에 출제 세팅 이후

② 2018-수능 정책수단 + 오버슈팅

정책수단으로 흐름을 수능에 받습니다.

당연히 6평에 이어지는 흐름이니 정보량은 2지문 연결한 수준으로 확장되며,

구조적으로는

1단락과 마지막단락이 각각 독립 정보 군집으로

각각 1문항씩 출제/설계 됩니다.

2단락은 그 사례로서 오버슈팅 도입

3단락은 장기 환율 변동 원리

4단락은 단기 환율 변동 원리를 출제하고

1<sup>st</sup> 문항에서는 3단락 장기 환율 원리를 시작으로

2<sup>nd</sup> 문항에서는 1단락 정보군집

3<sup>rd</sup> 문항에서는 4단락 장기+단기 환율 원리 이해 적용

4<sup>th</sup> 문항에서는 2~4단락의 오버슈팅 전반에 대한 이해 적용

⇨ 시각자료화 (그래프 그리기/이해/해석하기)로 연결

5<sup>th</sup> 문항에서는 마지막 단락 주제문 = 정답선지

㉓ 2019-9월 CDS 프리미엄(글로벌 금융위기)  
인류 역사상 많은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 현재 진행형이며,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미래인 여러분들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다루게 됩니다.

\*MBS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의 부실화를 예상하여 만든  
\*CDS : 채권부도보험  
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소재들이기 때문에 출제됩니다.

사실 MBS자체를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게 또, 수능 국어가 '논란'이 중심에 설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MBS에서 조금 비껴있는 CDS를 다루고  
문체와, 지문과, 문항도 상당히 건조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문 구조 역시 매우 간단합니다

1단락에서 주제 세팅 이후  
2단락-3단락에서는  
채권 투자의 위험 P  
신용등급 부여 S  
하나의 정보 군집 / 원리 잡고

4단락-5단락에서는  
CDS의 원리를 5단락 예시로 보험 상황을 적용하여 설명 후

6단락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른 CDS-프리미엄, 즉 채권보험료를 원리를  
잡습니다.

주제 구조 세팅하면 답 찾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단조로운 감각의 문제이지만,

㉔ 2020-3월 학평 주식회사(2017-9월 사단법인 연계)  
+순환출자(금융 자본주의 체제 setting)  
작년 3월 학평부터 평가원의 본격적인 mind set이  
보입니다.  
작년 3월 학평 해설 당시 3년 안에 출제 될 거라 했던 그  
소재  
3개월 만에 6월에 출제되고, 어마어마한 이슈가 됩니다.

㉕ 2020-6월 글로벌 금융위기 전 후의 경제 문제와 해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미시건전성  
\*거시건전성  
'금융(=은행)'자본주의의 시작으로  
장점을 보면 '없던' 부의 창출로,  
과학/기술/상업의 발달이 촉발되었습니다.  
단점 역시 많으나, 초점을 '금융' 자본주의에 맞추면  
'금융'자체의 부실화  
즉,  
P : Bank run의 위험이 있고  
S : 최저자기자본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지문의 구조는  
1단락에서  
기존 기출의 통화정책/재정정책 전반 흐름을 잡고

2단락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금융위기를 다룹니다.

\*미시건전성  
'금융(=은행)'자본주의의 시작으로  
장점을 보면 '없던' 부의 창출로,  
과학/기술/상업의 발달이 촉발되었습니다.

단점 역시 많으나, 초점을 '금융' 자본주의에 맞추면  
'금융'자체의 부실화  
즉,  
P : Bank run의 위험이 있고  
S : 최저자기자본  
확보로 해결합니다.

이는 다시

㉖ 2020-수능 BIS  
로 이어지는 출제 흐름을 갖습니다.

3단락 부터는  
기존의  
\*미시건전성  
확보로 해결되지 않을만큼 거대한 문제를 일으킨  
글로벌 금융위기

㉗ 2019-9월 CDS 프리미엄(글로벌 금융위기)  
를 언급하며

P : 글로벌 금융위기  
C : 버블, 심리, 거대화  
S : 미시+거시건전성 확보  
의 구조/내용을 다룹니다.

4단락에서 대략적인 원인과 해법을 다루고  
5단락 이후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다룹니다. (완충자본제도)

다만, 아직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결은 요원합니다.

관련하여  
Q.E 양적완화가 어느정도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여전히, 위기라서

MMT와 같은 현대통화이론이 등장합니다.

더 큰 문제는,  
Covid-19 으로 인한 상황.  
이 부분이 좀 더 강화 출제 되리라 예상도 되고  
그래서  
Q.E 또는 MMT 같은, 현재 ebs에서도 볼 수 있는  
지문으로 강력하게 출제 예감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경제문맹, 법문맹, 과학기술문맹, 철학문맹,  
논리문맹, 예술문맹이 문제!**  
**따라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특히, '경제'체제 변화흐름을 잡고,**  
**최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존경제지식'이 필수**

관련하여 ebs에서 풀어 볼 지문 및 내용 이해 / 구조 처리  
부분은 역시 보충영상/원론서에 있고

추후 자료로도 제공되니,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제예상 : ★★★★★ 98%**

**평가원의 '과학/기술' 지문의 시작과 끝 mind set**

\*소재/내용에서의 연계가 때때로 critical 할 수 있음  
(2020학년도 6평 미토콘드리아)

**\*일반적으로,**

**구조/처리 방식에서의 사고 흐름 잡는 것이 핵심**

- ① 2017-6월 퍼셉트론 \*4차 산업혁명 시작
- ② 2017-9월 콘크리트 \*세부정보X 주제 구조
- ③ 2017 수능 탄수화물 \*세부정보X 주제 구조
- ④ 2018-6월 DNS 스푸핑
- ⑤ 2018-9월 고전vs양자역학-양자컴퓨터 융복합\*EBS연계
- ⑥ 2018-수능 디지털 통신 시스템-부호화 \*9평 연계
- ⑦ 2019-6월 LFIA 키트 \*2020 수능 항원/항체 연계
- ⑧ 2019-9월 STM \*양자터널링효과 연계 가능  
\*2019-수능 우주론은 [A]단락-31번'만' 과학기술.  
\*\*우주론을 과학기술/융복합 분류하는 순간 3류
- ⑨ 2020-6월 개체성-공진화(미토콘드리아 EBS연계)
- ⑩ 2020-9월 스마트폰 위치추정 원리(2014예비 연계)
- ⑪ 2020-수능 공진화-이식-레트로 바이러스(6평 연계)

- ⑫ 2022 예비 충전지 원리
  - ⑬ 2021-6평 손떨림 방지 기술
  - ⑭ 2021-9월 방역 원리
- \*2017-9월 칼로리 지문 역시 과학 기술이지만, 흐름이 다르므로, 논설문/주제/구조가 핵심인 구조 특집에서 다룸.  
\*소재가 EBS 연계 될 경우 난이도/매경지식에서 치명적이 되므로 EBS에 적용 연결 연습은 필수  
P 정보 완결성 / 논리 완결성 떨어지면서도 정보량이 많음  
S 처리가능한 정보, 주제, 구조, 정보가치, 의도/설계 집중

- \*출제 가능 소재**
- \*\*양자터널링 효과(과거 반도체 지문을 비롯 여여 출제 가능성 매우 높음)**
- \*\*상대성 이론 ⇨ 영화 '인터스텔라'**
- \*\*미시vs거시 ⇨ 초끈이론, (\*\*EBS)**
- \*\*\*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크롤링, 마이닝, DB구조**
- \*보안**
- \*\*자율주행 기술 원리, 내연기관, 전기모터 구동 원리**
- \*\*환경-지구온난화or오존층(\*\*EBS지구냉각설, 오로라)**

**과학기술 지문의 핵심은**

- 1. 연결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 처리 능력
- 2. 때때로 ebs/기출 연계 소재 배경 지식 전제

**따라서...**

- 1.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
- 2. 주제
- 3. 구조
- 4. 정보가치
- 5. 설계/의도
- 6. 출제 관습, 즉 평가원 mind set 바탕

흐름잡아서  
기출 전체 연습 필수  
이후  
ebs 적용  
이후  
사설 다 풀림.

❶ 2017-6월 퍼셉트론 \*4차 산업혁명 시작  
~2016 흐름에서 바라보면 정보량이 터진 지문으로,  
세부정보 와리가리 일치,  
선지 근거를 지문에 밑줄 치고 연결,  
하는 전형적 접근이 매우 많아지는 것처럼  
착시를 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는 아주 전형적인 최근 수능 흐름으로  
평가원이 의도한 사고 흐름을 잡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락 인공지능경망 주제 도입
- 2단락 퍼셉트론의 기본 구조 및 핵심 원리\*\*\* (정보가치 가장 중요 + 처리가능 정보에 집중)
- 3단락 복잡해진 퍼셉트론의 구조 원리
- 4단락 머신러닝 원리
- 5단락 머신러닝 실제 예시 적용

따라서 16번 문항이 세부내용 발췌독 같지만,  
핵심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수도, 시간도, 정확도도, 피로도도, 피지컬도, 모든  
접근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원의  
출제의도/설계, 사고 흐름입니다.

17번 문항 역시

세부 내용을 묻는 문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퍼셉트론의 기본 원리로 접근하면 역시 정보가치 높은  
선지들에서 정보 처리 / 선지 판별 됩니다.  
물론 정답 선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정보 - 문장 구조 처리의 명확함을 바탕으로  
정확한 의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리고 현 시점 그러한 정보처리가 부족할 수 있으나  
이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정보처리로,  
누구나 간단한 수업/연습만으로 해결됩니다.

18번, 19번 문항 또한 17번과 같은  
정보가치 높은 내용 + 지문 원리 이해로 가는 것이  
평가원 의도의 사고 흐름입니다.

❷ 2017-9월 콘크리트 \*세부정보X 주제 구조  
~2016 흐름에서 바라보면 정보량이 터진 지문으로,  
더욱이

❶ 2017-6월 퍼셉트론 \*4차 산업혁명 시작  
지문의 연결선에서 보면,  
세부내용 어그로가 매우 크게 보이는 지문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주제+구조+정보가치 집중하는 것이 핵심으로

내용-주제는  
콘크리트의 발전 + 그것이 쓰인 건축물의 구조적 특징

- 구조는
- 1단락에서 콘크리트 - 판테온의 구조적 특징
- 2단락에서 콘크리트 원리 - 수화반응
- 3단락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 강도의 원리
- 4단락에서 사보아 주택의 구조적 특징
- 5단락에서 프레스트리스 콘크리트로 발전 + 원리, 김벨 미술관의 구조적 특징
- + 29번 보기 철골 +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의 구조적 특징

그래서, 전형적으로 주제 + 주제의 전개방식(구조)를 묻는  
25번 문항이 해결되고

이어지는 26번에서  
세부내용 같지만, 각 건축물의 구조적 특징을 묻게 됩니다.  
결국 ‘한 단어’로 정답이 갈리긴 하지만,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가 아닌  
모든 정보에서 한 단어 찾느라 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우리의 시야에 걸려들게 됩니다.

27-28번은 지문의 2단락, 3단락 원리를 바탕으로  
수식 이해-과학기술 원리를 적용하는 유형이고

29번은  
표치리도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주제에 집중하면 보이는 핵심 원리로 정답이  
보입니다.

③ 2017 수능 탄수화물 \*세부정보X 주제 구조  
마찬가지로  
~16 기출 흐름 연장에서 보면  
정보량 폭발이지만  
특히 35번 문항에서 출제 의도/설계 사고의 흐름을 못  
잡으면  
세부내용 탈다가 1번 4번 복수정답을 주장하게 되거나  
‘한 단어’를 준거로 선지 정오 판별을 주장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라는 사고 방식은  
매우 좁은 영역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역시  
전체 정보를 주제-구조 잡아서  
이 정보에 맞는 후처리 => ‘과정’ 도식화를 해두시고  
비교/대조로 잡아주시면  
33번, 34번, 35번, 36번 모두  
세부 내용 어그로 끌리는 문제가 아니라  
주제 구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2018-6월 DNS 스푸핑  
앞 탄수화물 지문과 비슷한 성격으로  
단계/과정별 정보처리가 중요하며, 약간은 세부내용에  
집중하게 될 수 있는 느낌이 있으나...

⑤ 2018-9월 고전vs양자역학-양자컴퓨터 융복합\*ebs연계  
이 지문부터의 특징은  
융복합 또는 주제가 2 이상의 지문에서  
정보군집으로 독립 지문으로 처리하는 접근이 매우  
편해지기도 하며,

무엇보다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집중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유는, 당연한 것이  
과거의 단순한 수준의 과학 기술 정보처리에서  
이 중요해지는 지문으로,

주제와  
구조와  
정보가치와  
의도/설계-평가원 mind set  
특히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지 않으면  
시간, 실수,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1~2단락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비교로  
아인슈타인의 견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첫 문항을 절대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3단락은 독립문항으로 두 번째 문항의 ebs 연계 보기  
내용을 엮기 위해 설계된 내용으로 내용 자체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4~6단락은 고전논리 vs 비고전논리의 비교에서  
자기지시적 문장 ⇨ 참 동시에 거짓 문장 으로 이어지는  
주제로 세 번째 문항

특히 6단락의 원리 이해를 적용하는  
네 번째 문항

마지막 문항은 전체 내용 흐름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문항의  
설계를 갖습니다.

- ㉞ 2018-수능 디지털 통신 시스템-부호화 \*9평 연계
- ㉟ 2019-6월 LFIA 키트 \*2020 수능 항원/항체 연계
- ㊱ 2019-9월 STM \*양자터널링효과 연계 가능
- ㊲ 2020-9월 스마트폰 위치추정 원리(2014예비 연계)

처리가능한 정보에 집중  
하지 않으면

시간, 실수,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구조적 특징이 비슷한 지문들이므로 엮어서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1단락~2단락,  
Topic setting 위치에서 주제가 잡힙니다.

상술하는 2단락 이후에서  
세부 내용 어그로 끌리면 끝장나는 지문으로  
정확하게 단락별 소주제와  
과학기술이니 원리/구조/그림/인과/단계 이해 등을 바탕  
선지/보기 적용 판단하는 유형으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정보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기존 접근법을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문에는 없는 정보를 정확히 찾아야 선지가  
판단되는 한계에 직면합니다.**

반면,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면  
**1. 없는 정보로 판단시키는 선지 skip 및 판단 보류  
2. 관련 없는 정보를 관련시켜 판단시키는 선지 skip/보류  
등의 과정을 거쳐**

**주제/원리이해/구조/가치 높은 정보로 판단 되는  
특정 선지가 나오는데  
주로 이렇게 정답선지가 특정됩니다.**

예시로 부호화 지문은  
1단락 후반부 주제 세팅 => 2번째 문항으로 연결  
2단락 소주제는 처리 불가  
3단락, 4단락 원리는 각각 40번 41번 지문 원리 이해  
보기/선지 적용으로 이어집니다.

첫 문항 역시 정보가치 높은 내용으로 해결됩니다.

LFIA키트는  
마지막 두 단락이 별도의 정보군집으로 - 세 번째 문항에  
적용되고

구조는 매우 전형적으로  
1~2단락 주제 세팅 후  
2단락 정보량 터지는데, 처리 가능한 정보/정보가치 높은  
정보에 집중하면, 바로 첫 문항 해소 단서  
3단락은 약간의 독립정보군집 성격이 있지만, 역시 3단락의  
소주제/구조에 집중하면 두 번째 문항이 해소됩니다.

이렇게 전체 내용 처리가 되면  
마지막 문항에서 글 전체 내용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시키는 유형이 설게 되어 있습니다.

\*2019-수능 우주론은 [A]단락-31번'만' 과학기술.  
\*\*우주론을 과학기술/융복합 분류하는 순간 3류  
최근 가장 이슈였던 문항입니다.  
물리학회에서 출제요류를 운운했던 문제인데,  
이 지문은 과학/기술 지문이 아닙니다.  
철학 지문 흐름에서 다루어야 정확합니다.

㉠ 2020-6월 개체성-공진화(미토콘드리아 ebs연계)  
작년 가장 이슈가 되었던 문항으로  
25년 수능 역사상 최악의 오답률을 기록합니다.  
즉, 일반적 상식/일반적 논리로 접근시 오답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만점자 65명 시험이 되게했습니다.

1~2단락은 개체성에 대한 주제를 형성하지만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 정보에만 집중해주면  
주제 묻는 첫 문항 및 나머지 문항들에서 1~2단락의 정보  
연결에서 정보처리에 압도적 우위를 선점합니다.

이후  
3단락에서 미토콘드리아 세팅  
4단락에서 공생발생설 세팅  
주장+근거+반박+재반박+근거 라는 논리 구조를 잡고  
5단락에서 공생발생설 근거  
6단락에서 한 개체가 아니라는 근거  
세팅을 합니다.

당연히

첫 문항은 주제 + 구조를 묻고

두/세/네 번째 문항은 정보가치 높은 내용들을 잡으면 접근이 매우 편해지며

**그렇게 잡은 글 전체의 구조가 있어야만**

**마지막**

**역대 25년 평가원 기출 오답률 1등 문항의 해법이**  
**보입니다.**

**특히 ebs 연계 지문으로서**

**‘공진화’지문과 연계되고**

**이는 다시 평가원 의도에 따라**

**당해연도 수능**

**‘이식’ + ‘레트로 바이러스’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 못 잡으면 역시 난이도와 풀이시간은 물론 실수**  
**까지 급상승합니다.**

⑩ 2020-수능 공진화-이식-레트로 바이러스(6평 연계)  
독립 지문으로 다루면 난이도가 미쳐 날뛰지만  
6평 연계지문으로 ‘공진화’ 개념으로 보면 매우 평온해지는  
난이도로 바뀝니다.

**첫 문항부터 세부내용 발췌독처럼 느껴지는 선지/정보들이**  
**결국은 주제-구조-정보가치 높은 내용들의 연결로 보이고**

두 번째 문항도 세부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화작문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시키는 것과 같이  
구조로 털어줘야 명확한 판단/의도/설계가 보입니다.

주제 원리를 이해해야만 판단이 쉬워지는 3번째문항, 4번째  
문항까지.

⑫ 2022 예비 충전지 원리

⑬ 2021-6평 손떨림 방지 기술

⑭ 2021-9월 방역 원리

나머지 유형도 모두, 결국은 위의 과학기술 흐름을 따르고  
있으니,

위의 학습을 바탕으로 적용/연습 대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2예비평가의 충전 지문은

1. 충전의 구조와 원리 ⇨ 그림 이해

2. 충전시 문제와 해결 원리 ⇨ 그래프 이해

**즉, 줄글로만 처리하는 능력이 아닌**

**다양한 매체와 수단으로 전달되는 정보 처리 전반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의 수능 국어 시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6월 손떨림 방지 기술은

역시나 1~2단락 주제 세팅 이후

2~3단락에서 광학적 - 물리적 원리 / 구조 / 과정 설명

4~5단락에서 소프트 웨어적 원리 / 과정 설명

주제+구조를 포괄하는 초반부 문항에 이어

후반에서 지문 원리 이해 / 보기 선지 적용하는 유형으로  
이어집니다.

21-9월 방역 지문은

1-2단락 주제 세팅 후

3단락에서는 주요 멸균제의 특징 비교 - 표그리기

4단락 이후는 방역 원리를 인과적으로 풀어냅니다.

이러면 주제 묻는 첫 문항 쉽고

세부내용이 아닌, 주제-구조-정보가치 높은 내용 흐름에서  
2~3~4번째 문항 모두 해소 됩니다.

**내용과 구조에서 올해 수능**

**출제될만한(참고할만한) ebs 지문은**

**이미 수업 때 다뤘드렸으니**

**꼭 필기 내용 복습 바라며,**

**주후 관련한 자료 역시 제공 예정입니다.**

**출제예상 : ★★★★★ 90%**

**평가원의 '논리' 지문의 시작과 끝 mind set**

\*당신들이 알고 있는 '논리'는 매우 편협하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라는 그들은

과연 '논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

또한,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논리적 배경과,  
공학에서 다루는 논리적 배경과,  
언어학에서 다루는 논리적 배경과,  
일반인이 다루는 논리적 배경과  
국어교육학에서 다루는 논리적 배경이 같겠나?

아무리 천재라도 평가원 연구 교수님께...  
우사인 볼트가 마라톤 우승한다고 주장하는  
조오련과 물개가 수영 시합하면 조오련이가 이긴다는  
것 참 신박한 생각일세.

출제 오류??? 아는 만큼 보인다. 도가 지나쳤쥬...

우사인 볼트는 단거리 천재  
평가원 임용되신 연구 교수님들도 자기 분야 천재  
1876년 조선 개항  
1910년 조선 멸망  
24년. 그 시절에도 그런 변화를 가져왔는데?

1994학년도 '제3의 물결'배경의 수능 도입  
2021학년도 '4차 산업혁명'배경의 현 시점 수능  
27년. 내가 또 역사 강의 해야 해?

- ① 2017-6월 유비논증
- ② 2017-수능 논리실증주의 포퍼 vs 콰인 총체주의
- ③ 2018-9월 고전논리vs비고전논리  
\*고전vs양자역학-양자컴퓨터 융복합\*ebs연계
- ④ 2019-수능 가능세계  
\*ebs연계 배경지식 필수 or 수능 설계 원리 이해 필수
- ⑤ 2020-수능 전통적 인식론vs베이지주의  
\*2019 가능세계 복수 정답 의문에 대한  
평가원의 친절한 가르침. 사사하다. 아니, 계몽하다.

⑥ 22예비 동일론vs이월론

\*철학 주제의 지문이지만, 역시 19 가능세계 - 20 수능에 이어지는 흐름으로 '논리'라는 것이 무엇임을 사사하려는 평가원의 노력이 엿보임.

\*소재가 ebs 연계 될 경우 난이도/배경지식에서 치명적이 되므로 ebs에 적용 연결 연습은 필수  
P 정보 완결성 / 논리 완결성 떨어지면서도 정보량이 많음  
S 처리가능한 정보, 주제, 구조, 정보가치, 의도/설계 집중

\*출제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아직도 시중에서는 '근대 합리론' 수준의 '논리'가 주류임.  
이를 한 차원 높게 끌어 올려야만 미래가 있음.

논리 소재를 바탕으로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mind set, 사고 흐름을 잡아야만 풀리는 논리학 지문 출제 강력히 예감.

cf) 우리는 중세/근대/현대가 뒤섞임

중세-유교-종교경전+합리론에 근거한 세대  
근대-서구문물-과학/경험론에 근거한 세대  
현대??

중세

-종교 경전이 진리 = text를 진리처럼 여기던 정보처리  
-종교 경전이 경험적으로 입증 될 수 없으니 철저하게 합리론.

근대

-종교 경전이 잘못됨을 반박하기 위해 철저하게 논리에 근거 + 경험주의  
종교 경전이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없으니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는 때때로 박터지게 싸움

즉...

우리는 중세-합리론 vs 근대-경험론에서  
아직도 중세 or 합리론 수준의 사고에 머무른 세대가 전 인구의 1/3

이어서 근대 or 경험론 수준의 사고에 머무른 세대가 지금 학생들의 선배~부모 세대가 인구의 1/3

4차 산업혁명 시대에요... 정보의 성격이 바뀜.

인간 존재 성격이 바뀜. 차원이 다른 사고의 영역을 요구

❶ 2017-6월 유비논증

❷ 2017-수능 논리실증주의 포퍼 vs 콰인 총체주의

출제 오류 시비가 있는 이유는

수능 국어의 정보의 논리적 완결성

정보 완결성 부족을 바탕으로

지문에 근거하여 답을 낼 수 없음

또는

지문 내용 내부에서의 논리 모순

등을 지적하는데

원래 그게 출제 의도이고

그것이 현 시대 4차 산업 혁명에 우리가 마주한 정보의

절대 다수의 성격이며,

사실 인류 역사상 우리는 매우 특수하고 인위적인 상황,

혹은 종교 경전을 처리하는 상황 이외의 상황에서는

원래 논리적이지 않거나, 완결성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유익미한 정보를 이끌어내어야 하는 존재였음.

❸ 2018-9월 고전논리vs비고전논리

다른 파트에서 구조/내용 특징 다름

❹ 2019-수능 가능세계

\*ebs연계 배경지식 필수 or 수능 설계 원리 이해 필수

모순관계 VS 반대관계

그리고 배증률의 적용에 대한 EBS 기출 전제 출제

물론, 선지 설계 원리 분석으로 정답 특정 가능하지만

복수정답 시비를 비롯해 어마어마한 논란이 됨

이에 다음 해 평가원에서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EBS 연계 출제임을 사사함.

❺ 2020-수능 전통적 인식론vs베이지주의

\*2019 가능세계 복수 정답 의문에 대한

위의 문항에 이어

작년 수능에서 있었던 논란은

‘논리’의 범주를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 차원임을 밝히고

이를 반박하는 접근

즉,

우리는 기본적으로

45. 다음 중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① A=B

② B=C

③ C=D

④ D=E

⑤ A=Z

이러한 문항/선지가 출제 되면

선지 하나 하나가 옳고 그름을 판별하려 함.

근데 누가 그렇게 가르침?

우리 평가원이?

아니면

느그 형이?

당장

\*2018 기출 참고.

고전논리 = 참 혹은 거짓만 있는 논리

비고전논리 = 참 혹은 거짓 혹은 참 동시에 거짓

보이죠?

논리는 참 동시에 거짓 일 수도 있음... 응???

① A=B

② B=C

③ C=D

④ D=E

⑤ A=Z

각각 선지가 왜 맞고, 왜 틀리고를 따지는 사고 자체가

‘고전’논리라니까...

왜?

참 동시에 거짓일 수 있으니.

더군다나

‘문학’의 특정 선지가 정답이 되어야 하는 원리까지

평가원에서는 틀을 잡아 줌.

그것이 내가 수업에서 다룬 정답 스펙트럼.

이것이 2020 수능 전통적 인식론 VS 베이지주의

아니 애초에

‘통계’단원을 배우면 모르나...

심지어, 학과 이름 부터가 수리\*통계학부(과) 인데?

수학 시간에 뭐했노?

내가 또 수학-통계 강의 해야 해?

정리하면,  
 역시 전형적으로  
 1~2단락 주제 세팅 후  
 각 단락에서 소주제/원리를 잡고  
 전체 주제+구조를 묻는 첫 문항  
 각 단락 원리/소주제를 이해, 바탕으로 이를 적용하는  
 독립문항  
 전체를 관통하는 마지막 문항으로 이어지는 흐름

관련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EBS 지문 역시  
 기존 수업에 다루었고  
 추후 배포 자료에서 추가 제공 예정

**출제예상 : ★★☆☆☆**

**평가원의 '철학' 지문의 시작과 끝 mind set**

- \*신학 ⇨ 철학 ⇨ 자연과학
- \*\*인류의 발전과 함께 발전
- \*\*\*인간에 대한 학문. 우리 삶의 근간. 우리 삶의 시작
- \*\*\*\*사상 전반에 대한 구조/내용 지식 BASE 필요. 내용 학습도 필수

- ① 2018-6월 동양철학. 유학-이기론
- ② 2018-수능 서양철학. 목적론-형이상학 vs 자연과학
- ③ 2019-6월 서양의학의 조선 전래 \*중세의 종말과 근대
- ④ 2019-수능 서양의 우주론과 동양 전래 \*중세종말, 근대 (feat1. 개화기. 멸망. 사상/철학의 변화 필수. (feat2. 사상/철학의 변화 ⇨ 기득권의 변혁 or 권력 이동)
- ⑤ 2020-6월 결정론 vs 에피쿠로스 학파 ⇨ '철학'의 시작  
 \*2018-9월 철학 융복합. 종교학. 성과 속. 집합의례  
 \*2019-9월 철학 융복합. 생산학파vs소비학파+예술

최근 흐름에서 다를 만큼 다루었고,  
 다른 소재 대비 출제 가능성은 내려 옴  
 단, 언젠든 융복합 출제 가능성 존재

- ① 2018-6월 동양철학. 유학-이기론  
 1단락 유학에 대한 기본 정보 + 주제 세팅  
 2단락 이기론 세팅  
 3단락 이기론 바탕 수양론  
 4단락 이기론 바탕 경제론 - 법제 개혁론  
 5단락 조선의 법제  
 6단락 이기론 바탕 + 조선의 법제 + 법제 개혁론  
 7단락 요약 정리

흐름으로 주제를 잡고 구조를 잡으면  
 1문항 주제+구조 유형  
 2번째 문항은 초반부 이기론  
 3번째, 5번째 문항은 이기론 바탕 글 전반 적용  
 4번째 문항은 동양 이기론 VS 서양 철학 비교 대조  
 6번째 문항은 글 전체 내용 이해 바탕 보기 선지 세부 내용 적용 유형

② 2018-수능 서양철학. 목적론-형이상학 vs 자연과학

- 1단락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정보군집
- 2단락 근대 경험주의 바탕 반박 / 재반박 여지
- 3단락 현대에서 근대 견해 반박
- 4단락 아리스토텔레스 VS 엠펜도클레스
- \*목적론 VS 물질론/환원론
- 5단락 요약 정리

이를 바탕으로

이기론 바탕 경제론 - 법제 개혁론

바탕 수양론

주제 원리를 이해해야만 판단이 쉬워지는 3번째문항, 4번째 문항까지.

③ 2019-6월 서양의학의 조선 전래 \*중세의 종말과 근대

- 구조적 특징은
- 1단락 세팅된 주제가
- 2단락을 넘어 3단락 초반부 정보군집에서 정립된 이후 독립정보군집 문항으로 출제됨

다시 2단락, 그리고 4단락~ 이후 단락에서 4명의 학자들 견해가 나열됨  
 ⇨ 정보 후 처리 : 표그리기가 핵심.  
 특히, 동서양 철학 비교가 핵심이며 이는 수능의 포석임.

④ 2019-수능 서양의 우주론과 동양 전래 \*중세종말, 근대 (feat1. 개화기. 멸망. 사상/철학의 변화 필수.

(feat2. 사상/철학의 변화 ⇨ 기득권의 변혁 or 권력 이동)  
 역대급 지문으로  
 정보량이 폭발하지만  
 천동설VS지동설의 완결성 없는 세부 내용에 어그로가 끌리니... 이런 지문을 어떻게??? 라며 대중의 반응이 폭발.

1단락에서 경험주의⇨중세 '형이상학' 극복  
 2단락~4단락에서 그 사례로서 우주론의 흐름을 잡음.  
 5~8단락 역시 중국에서의 우주론 변화 흐름을 잡음

그 흐름은

1. 경험론 ⇨ 기존 패러다임 반박 사례 발견
2. 기존 패러다임에 근거한 기득권의 반발
3. 새로운 패러다임 주장하는 쪽의 일부 퇴보
4. 결국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화로, 근대-현대로 들어선 서양과 대비 되어

중국은

1. 근대 서양 사상 ⇨ 초기 수용
2. 기존 패러다임에 위배 ⇨ 기득권 반박
3. 대안적 패러다임의 등장
4. 하지만 동양은 결국 기존 패러다임의 승리로 끝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정보량 자체가 터져나간데다가  
 완결성 없는 정보가 나열되고  
 결과적으로 세부 내용 어그로 끌리면 끝장나는 지문

- 1문항은 역시나 주제+구조로 탈 수 있고
- 2문항은 역시 주제 원리인 경험론 ⇨ 형이상학 극복에 초점
- 3문항은 위의 서양 우주론 변화 전반을 다루고
- 4문항은 동양 우주론 변화 전반 ⇨ 숨겨진 주제 : 결국 동양은 극복 못함
- 5문항은 독립문항으로 [A]단락 바탕 과학기술 기출 연계 문항

이렇게 놓고 보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지문

아래의 나머지 '철학'지문 성격으로 연습 가능

- ⑤ 2020-6월 결정론 vs 에피쿠로스 학파 ⇨ '철학'의 시작
- \*2018-9월 철학 융복합. 종교학. 성과 속. 집합의례
- \*2019-9월 철학 융복합. 생산학파vs소비학파+예술

철학 지문은 융복합적 성격으로  
 '논리'적 성격을 갖거나 '논박'구조를 갖을 경우  
 논설문 구조 기반 + 논리 구조 도식화가 핵심.